

충북경제 동향과 전망

Quarterly Economic Outlook for Chungbuk

경제전망 및 주요지표 요약

충북 및 국내의 경제전망

주요지표 요약

충북 지역 경제

지역경기 지역산업

지역고용 지역물가

지역수출입

지역금융

국내 경제

경제성장률 경기 소비

투자 국내물가 고용

금융 국제거래

세계 경제

2005. 6 (2/4분기)

특집 - 충북거시계량모형(CBQEM:2004)



충북개발연구원
CHUNGBUK DEVELOPMENT INSTITUTE

충청북도 경제동향분석팀

연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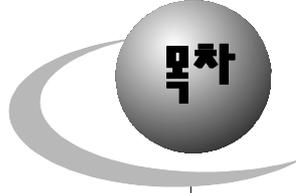
조택희 (충북개발연구원)

연훈수 (충북개발연구원)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정초시 (청주대 경제학과)

이현재 (청주대 경제학과)



목차

제1편 경제전망 및 중요지표 요약

제2편 중요지표별 경제동향

I. 총괄 및 국내외 경제전망 / 3

I. 총괄지역경제 / 9

1. 증복경제 전망 / 3
2. 국내경제 전망 / 4
3. 세계경제 전망 / 5

1. 지역경기 / 10
2. 지역산업 / 12
3. 지역고용 / 14
4. 지역물가 / 16
5. 지역금융 / 18
6. 지역수출입 / 22

II. 중요지표 요약 / 6

II. 국내경제 / 25

1. 경제성장률 / 26
2. 경기 / 28
3. 소비 / 30
4. 투자 / 32
5. 국내물가 / 36
6. 고용 / 38
7. 금융 / 40
8. 국제거래 / 46

III. 세계경제 / 51

1. 경제성장률 / 52
2. 국제유가 / 54
3. 국제금융 / 56

부록 - 총괄지역경제방향(CBQEM2004)

제1편

경제전망 및 중요지표 요약

총론 및 국내외 경제 전망

3

중복경제 전망
국내경제 전망
세계경제 전망

중요지표 요약

6

I. 증복 및 국내외 경제 전망

1. 증복경제 전망

-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내 수출주력기업의 역외이전의 여파로 지역산업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나 하반기 국내경기가 내수부진을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기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고유가, 원화절상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전국의 산업생산 및 소비, 투자 등 주요 거시지표가 증가세가 지역실물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면 안정적 고용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제조업보다는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 국제유가 상승분의 반영, 각종 공과금 및 서비스 요금인상, 계절적 요인에 의한 채소류 가격 상승 등은 공급측면의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지속적인 확대재정정책,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자금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예금은행대출, 화폐발행액 및 중소기업대출 모두 상승할 전망이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임.
- 주요 교역국의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미달러의 약세가 지연될 것이나 지역경제구조가 아직 불안하여 향후 지역수출은 보험세를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증복거시계량모형(CBQEM2004)에 의한 전망 >

	2004	2005				
		1/4	2/4	3/4	4/4	연평균
지역내총생산(GRDP)	5.3	2.7	2.6	3.3	3.2	3.0
취업자수(EM)	1.4	0.2	2.5	2.6	2.5	2.0
실업률(UR)	2.7	2.8	2.1	2.4	2.6	2.5
소비자물가지수(CPI)	3.3	3.1	3.2	3.0	3.1	3.1

주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음영부분은 추정치임.

<충북경기종합지수(CBCI) 및 충북 BSI에 의한 전망>

- 충북의 종합적인 실물경기를 나타내는 충북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년 7월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어 바닥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04년 12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다 5월 들어 큰폭으로 감소한뒤 6월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어 향후 국내경기회복과 함께 지역 기업의 체감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CBCI 및 충북 BSI의 동향 및 전망>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전망)
CBCI	순 환 변 동 치	88.1	86.2	85.9	-	-
충북BSI	제 조 업 업 황	79	91	74	76	80
	비제조업 업황	52	71	61	69	54

출처 : 충북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충북본부

2. 국내경제 전망

- 국내경제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비해 하락하여 수축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연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소비관련 지표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의 향후 경기전망이 낙관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어 설비투자의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건축허가면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건설수주 증가가 예상되므로 단기적으로 건설경기는 회복될 것임.
- 고유가, 불안정한 노동시장,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지속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고유가로 인한 국내물가 상승압력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임.
- 설비투자는 지난 2년간 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기업의 수익성 개선, 환율하락으로 상승폭이 확대될 것임.

3. 세계경제 전망

- 2005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유가가 지속되고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성장률은 다소 하락한 4%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경제는 소비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설과 자본지출 역시 둔화세를 시현하고 있어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 전년도 2.7% 성장하였던 일본경제는 수출과 소비의 부진이 지속되고 생산과 설비투자도 조정을 받음에 따라 1%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유로경제는 높은 실업률로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이 소폭 증가세를 보이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1%초반의 낮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 중국경제는 정부의 투자과열 억제정책으로 투자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내수와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위안화의 2%평가절상으로 경제는 안정을 찾아 2005년 경제성장률은 8%대를 달성할 전망

II. 주요시표 요약

지 표		동 향	전 망	
중 북 지 역 경 제	경 기	체감경기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업황부진은 지속		
	산 업 생 산	산업생산활동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저점을 확인 중		
	고 용	전국에 비해 안정적 회복징후를 보임		
	어 음 부 도 율	어음부도율의 증가세 둔화		
국 내 경 제	경 제 성 장 륜	내수는 회복되는 반면 수출둔화에 따라 3%대 성장		
	경 기	하강국면의 저점을 통과 중		
	고 용	고용시장의 본격적 회복지연	—	
세 계 경 제	경 제 성 장 륜	고유가에 의해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는 다소 둔화		
	국 제 금 용	국 제 금 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주 요 국 주 가 지 수	미국은 하락세, 프랑스와 일본은 상승세	

주:  호전,  다소 호전, — 현상유지,  다소 악화,  악화

충북지역경제

9

지역경기 / 지역산업 / 지역고용
지역물가 / 지역금융
지역수출입

국내경제

25

경제성장률
경기 / 소비 / 투자
국내물가 / 고용
금융
국제거래

세계경제

51

경제성장률
국제유가
국제금융

I. 충북지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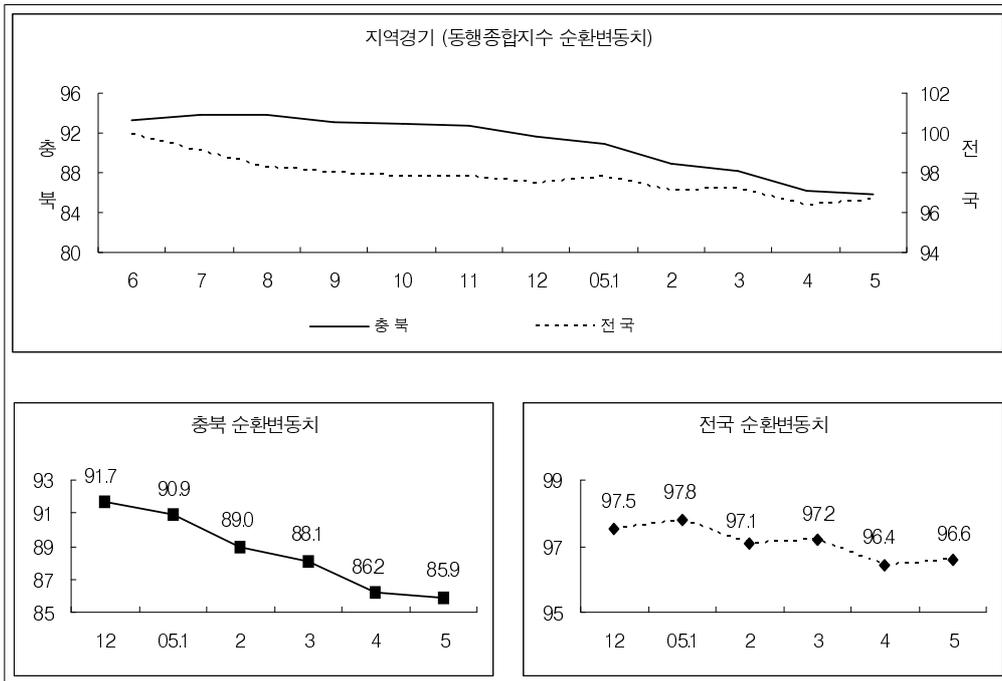
요약

지 표		동 향	전 망
지역 경기		체감경기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업황부진은 지속	
지역 산업		산업활동의 하락세 지속되어 저점을 확인 중	
지역 고용		전국에 비해 안정적 회복징후를 보이는 듯	
지역 물 가		소폭의 상승세 유지	
지역 금융	예금대출 및 화폐발행액	소폭의 상승세 지속	—
	어음부도율	어음부도율의 증가율은 둔화	
지역수출입		수출은 보합, 수입은 증가세	

주:  호전,  다소 호전, — 현상유지,  다소 악화,  악화

1. 지역경기

6월 중 도내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다소 나아졌으나 전반적인 업황은 부진



자료: 통계청 KOSIS, 충청북도·충북개발연구원

□ 현황

- 충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내수부진이 계속되고 국제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충북 제조업 업황BSI는 '04년 11월 57로 '03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후, 12월 이후 내수회복으로 4월(91)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5월(74)에 큰 폭으로 감소한 뒤 6월(76)에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기업의 체감경기는 부진한 것으로 보임.
- 비제조업 업황BSI 역시 '04년 12월 최저치(32)를 기록한 후 빠르게 상승하여 '05년 4월(71)까지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5월(61)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6월 중에는 69로 전월보다 업황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여 여전히 비제조업 체감경기는 부진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충북의 종합적인 실물경기를 나타내는 충북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년 1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03년 8월 바닥을 친 후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04년 7월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를 5월(85.9)에도 이어가 체감경기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난 해 7월까지의 실물경기 지표와 체감경기 지표가 차이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같은 양상을 보여 충북경기 역시 국내경기와 같이 전반적인 하강국면에 진입하여 바닥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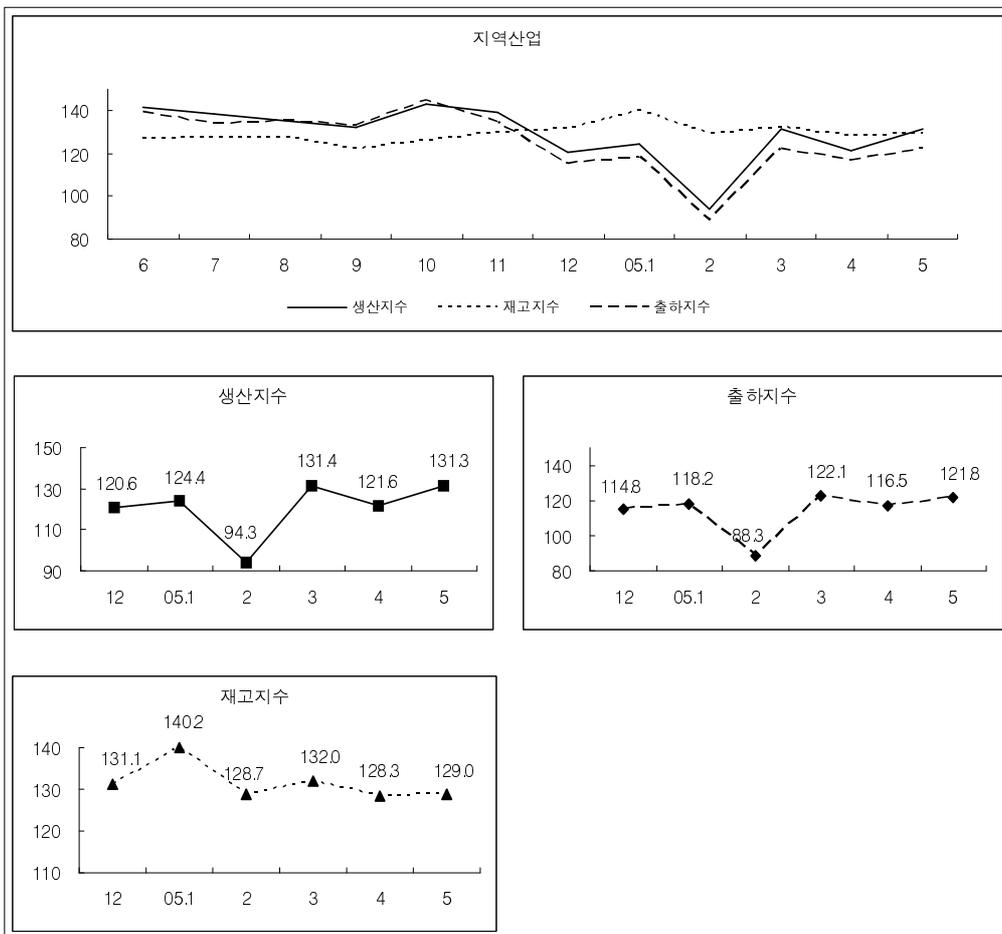
□ 전망

- 전반적으로 국내경기가 어느 정도 내수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도내 기업들의 경기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단, 향후 기업경기는 당분간 업종에 따라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임.

2. 지역산업

지역 산업활동은 하락세를 지속하여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중

(원지수, 2000=100)



자료: 통계청 KOSIS

□ 현황

- '05년 4월중 충북의 제조업생산은 전 업종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0.5% 감소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3.9% 감소하였음.
- 산업구조별로 보면 중공업은 11.7%, 경공업은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업종별로 보면 화합물·화학 등이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기타 전기기계가 감소세로 반전되고 기계·장비, 영상·음향·통신 등도 크게 감소하였음.
- '05년 4월중 충북의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9.7% 감소하여 전월(-6.4%)보다 감소세가 확대되었음. 업종별로는 기타전기기계(-9.7%)가 감소로 반전되고 기계·장비(-13.1%) 및 영상·음향·통신(-21.0%) 등도 감소세가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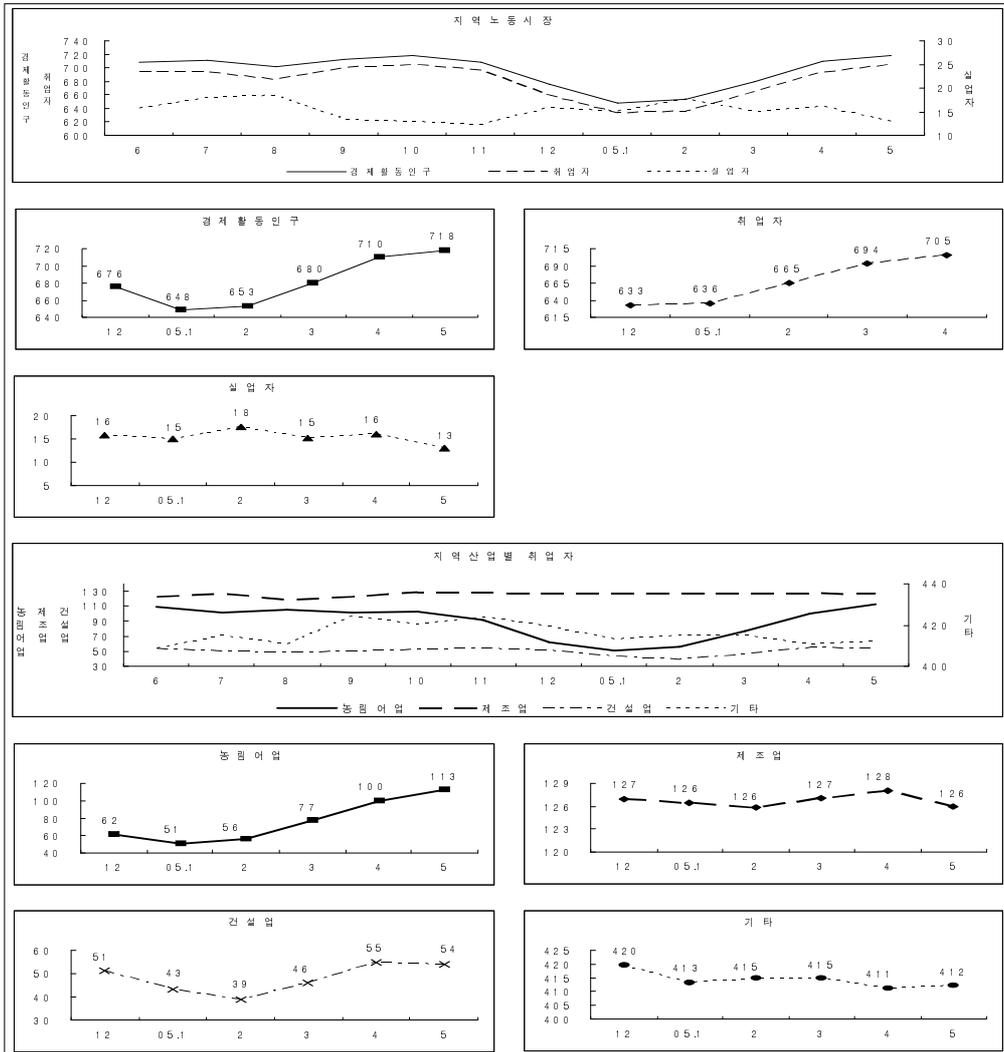
□ 전망

- '05년 7월 중 충북도내 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전월과 동일한 80으로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지역고용

지역노동시장은 전국에 비해 안정적 회복세의 조짐을 보이는 듯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KOSIS

□ 현황

- '05년 2/4분기 중 지역 실업률은 2.1%로 전년동기에 비해 0.6% 감소하였으며, 동 분기 중 전국 평균 3.7%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외형적으로 고용사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노동시장의 활성화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은 '05년 2/4/분기중 61.2%로 전년동기에 비해 0.5%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도 전년동기에 비해 17천명 증가한 703천명을 기록하였음.
- 전 산업에 걸쳐 취업자수는 증가하였는데,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각각 전년 동기에 비해 7천명, 제조업은 4천명 증가하였음.
- 고용구조에서 보았을 때에도 상용근로자의 증가와 더불어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감소하였으며, 청년실업자의 수도 감소하는 등 지역 노동시장은 지표상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동향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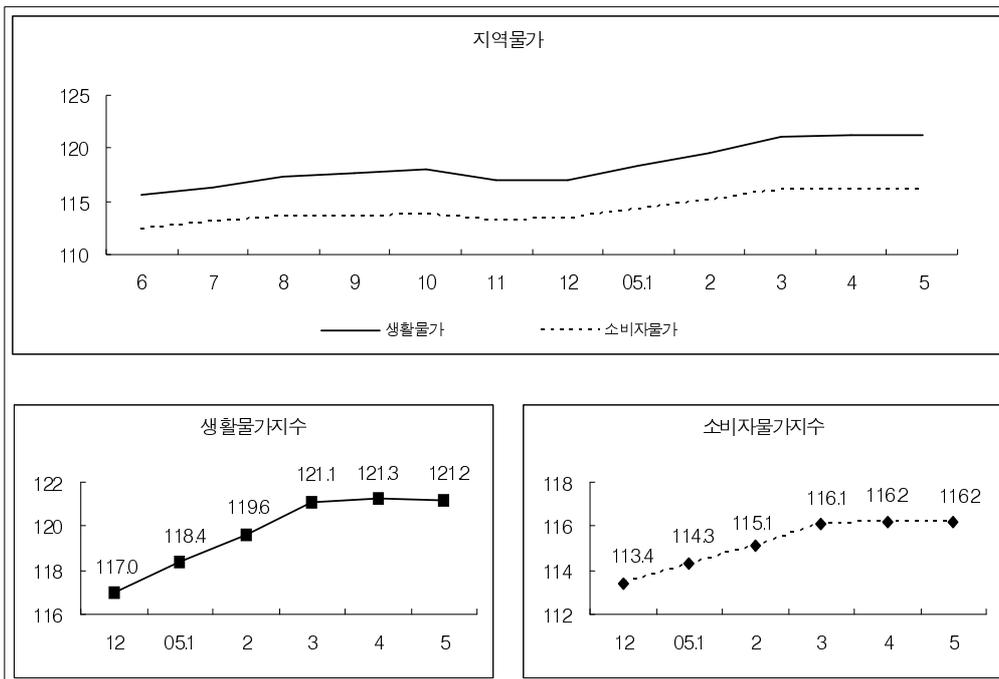
□ 전망

- '05년 5월 중 충북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생산지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의 경우 산업생산 및 소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것이 지역으로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실물경제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고용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4. 지역물가

소폭 상승세 유지 전망

(원지수, 2000=100)



자료 : 통계청 KOSIS

□ 현황

- 5월중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로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하였고, 상승폭은 전국평균치와 유사한 추세를 유지하였음. 6월중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5.8로 전년 동월대비 3.0% 상승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0.3% 하락함. '05년 1/4분기 이후 단기적으로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하였지만, 실물경제에 반영되지 않아서 소비자물가지수는 '05년 2/4분기 중에 보합세를 유지하였음.
- '05년 2/4분기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5월중에 121.2로 전월의 121.3과 비교하여 보합세를 유지하였음. 전국평균치와 비교할 때 생활물가지수도 전국평균치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음.

□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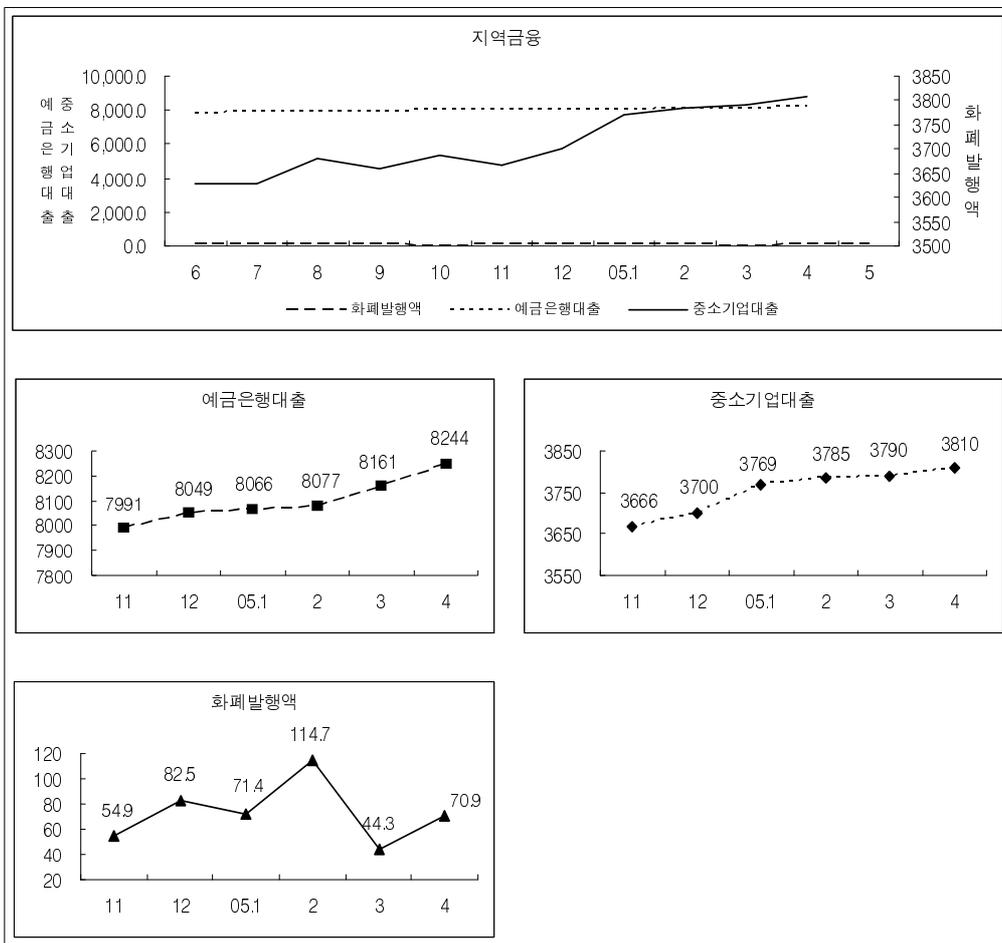
- '05년 3/4분기 중에 국제유가 상승분의 반영, 각종 공과금 및 서비스 요금의 인상, 계절적 요인에 따른 채소류 가격 인상 등이 공급측면의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내수부진이 회복되지 않아서 '05년 3/4분기 중에도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요인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5. 지역금융

5-1. 예금대출 및 화폐발행액

예금은행대출과 화폐발행액 모두 소폭 상승할 전망

(단위: 십억원)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 현황

- 2005년 4월중 예금은행대출은 8,244십억원으로 전월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05년 2/4분기중 대부분의 예금은행대출은 주택자금대출과 같은 가계대출과 기타 일반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05년 2/4분기 중의 대출금 증가는 재정자금 보다 금융자금의 증가세에 기인하였음. 중소기업대출은 9,810십억원으로 전월의 9,790십억원과 비교할 때 보합세를 유지하였음.
- 2005년 4월중 화폐발행액은 70.9십억원으로 전월의 44.9십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2005년 5월중의 화폐발행액 및 환수액은 각각 73.9십억원과 30.3십억원으로, 43.6십억원을 초과발행 하였으며 환수율은 41.0%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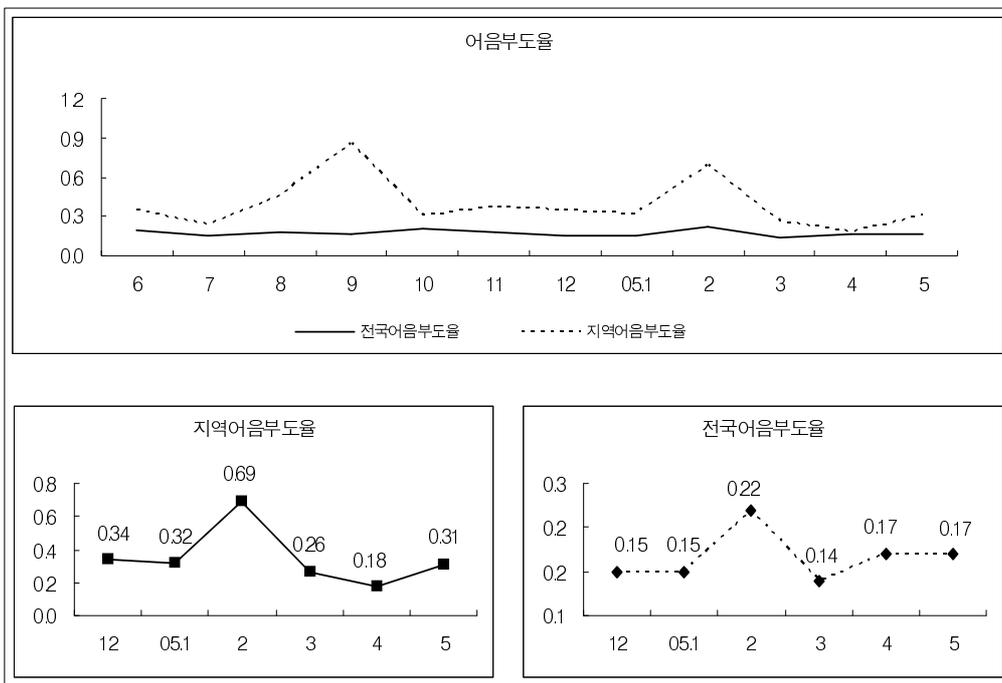
□ 전망

- '05년 3/4분기 중에도 지속적인 확대재정정책,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자금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예금은행대출, 화폐발행액, 및 중소기업대출 모두 상승할 전망이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임.

5-2 이음부도율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

(단위: %)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http://www.bok.or.kr/>

□ 현황

- 5월중 금액기준 지역어음부도율은 0.31%로 전월대비 0.13%p 상승하였으며, 전국어음부도율은 0.17%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또한, 2005년 6월중 충북지역 어음부도율은 0.29%로 전월대비 0.02%p 하락하였음.
- 이와 같은 추세는 기존 부도업체의 추가부도금액이 감소한데 기인하며, 업종별로는 제조업(-8억원)과 도소매업(-2억원)은 감소한 반면, 기타서비스업(+2억원)은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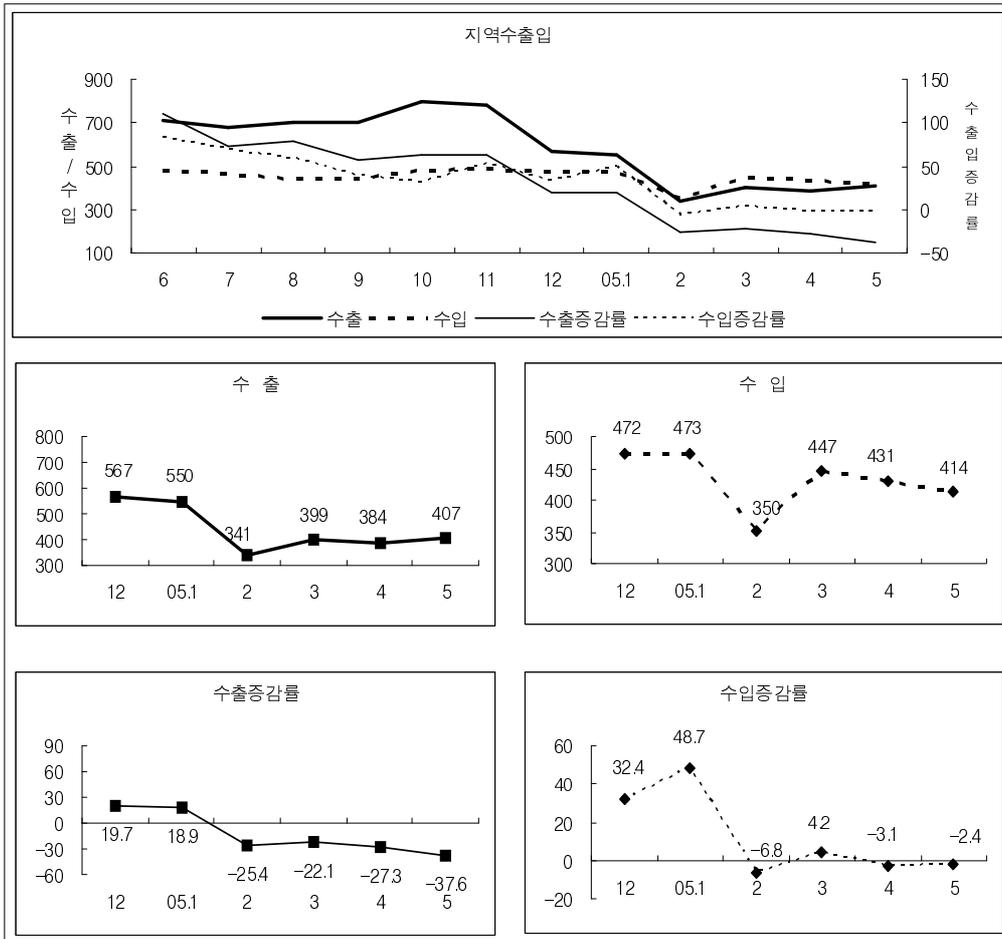
□ 전망

- '05년 3/4분기 중에는 지역중소기업체의 신규부도업체가 많지 않고, 기존 부도업체의 부도금액 감소가 예상되어 지역어음부도율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금융거래에서 어음의 교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결제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지역어음부도율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6. 지역수출입

수출은 보합세를, 수입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단위: 백만불,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현황

- 5월중 지역수출은 407백만불로 전월대비 5.99% 증가하였고, 지역수입은 5월중에 414백만불로 전월대비 3.94% 하락하였음. 주요 교역국의 경제상황이 다소 회복되었지만, 지역경제구조가 불안정하여 생산활동이 위축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지역수입은 감소하였음.
- LG전자 정보통신 휴대폰 사업부문의 타지역 이전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감소세가 확대되었지만, 경공업제품과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은 다소 증가하였음. 한편, 수입은 경공업제품은 증가하였지만, 철강 및 금속제품의 수입은 감소하였음.

□ 전망

- 주요 교역국의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미달러의 약세가 지연될 것이지만, 지역경제구조가 아직까지도 불안하여 '05년 3/4분기 중 지역수출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지역수입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II. 국내경제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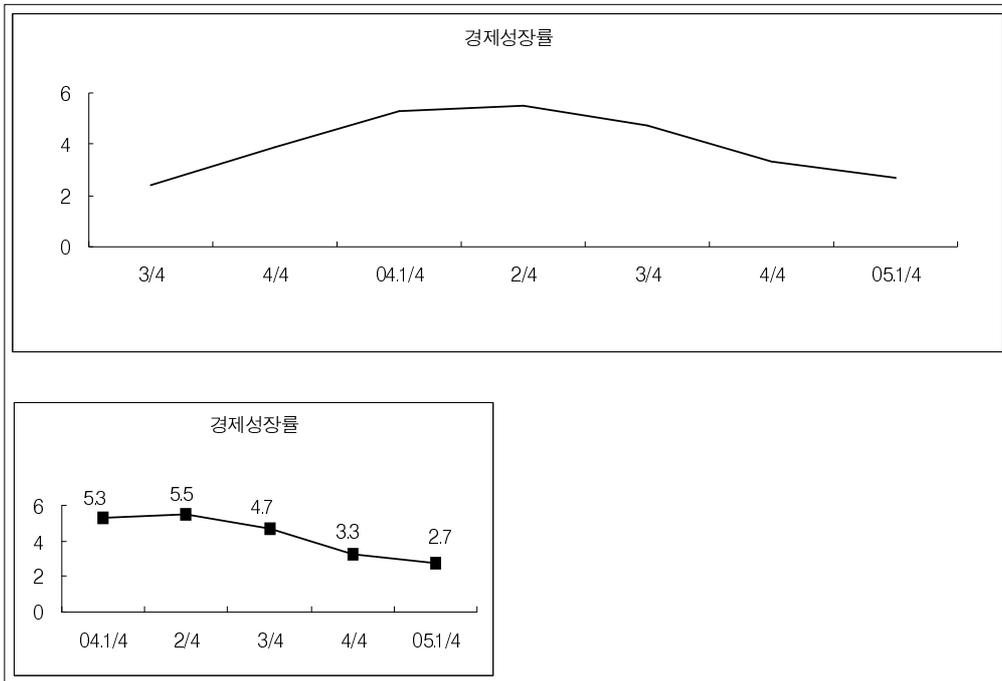
지 표		동 향	전 망
경 제 성 장 륜		내수는 회복되는 반면 수출둔화에 따라 3%대 성장	
경 기		하강국면의 저점을 통과 중	
소 비		민간소비의 회복세 지속	
투 자	설 비 투 자	동행지표와 선행지표의 혼조세	—
	건 설 투 자	단기적 혼조세를 보였으나 선행지표는 긍정적	
국 내 물 가		소폭의 상승세 유지	
고 용		고용시장의 본격적 회복 지연	—
금 융	통 화	보합세 유지	—
	금 리	소폭의 상승	
	주가지수	금융시장의 안정화로 상승세 유지	
국 제 래	환 율	원화환율의 강세기조 유지	
	수 출 입	수출·입 모두 소폭의 증가	

주:  호전,  다소 호전, — 현상유지,  다소 악화,  악화

1. 경제성장률

내수는 회복되는 반면, 수출증가세 둔화로 경제성장률은 3%대 전망

(GDP(2000년기준), 단위: %)



자료 : <http://www.bok.or.kr/>

□ 현황

- 상반기에 국내경제는 수출급증세가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됨에 따라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설비투자는 작년 2/4분기 이후 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회복세가 지속되어 올해 6% 정도 증가율을 기록하고, 소비는 가계신용 조정이 정리되어 가고 있으며, 고용상황의 점진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이후 지속적인 하강세를 보여 왔던 국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나 KDI의 분석과 같이 한국경제는 '05년 2/4분기 현재 바닥권을 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 전망

- 2005년 국내경제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반면 세계경제성장률이 작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상반기에는 민간소비가 소폭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내수 부문의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4%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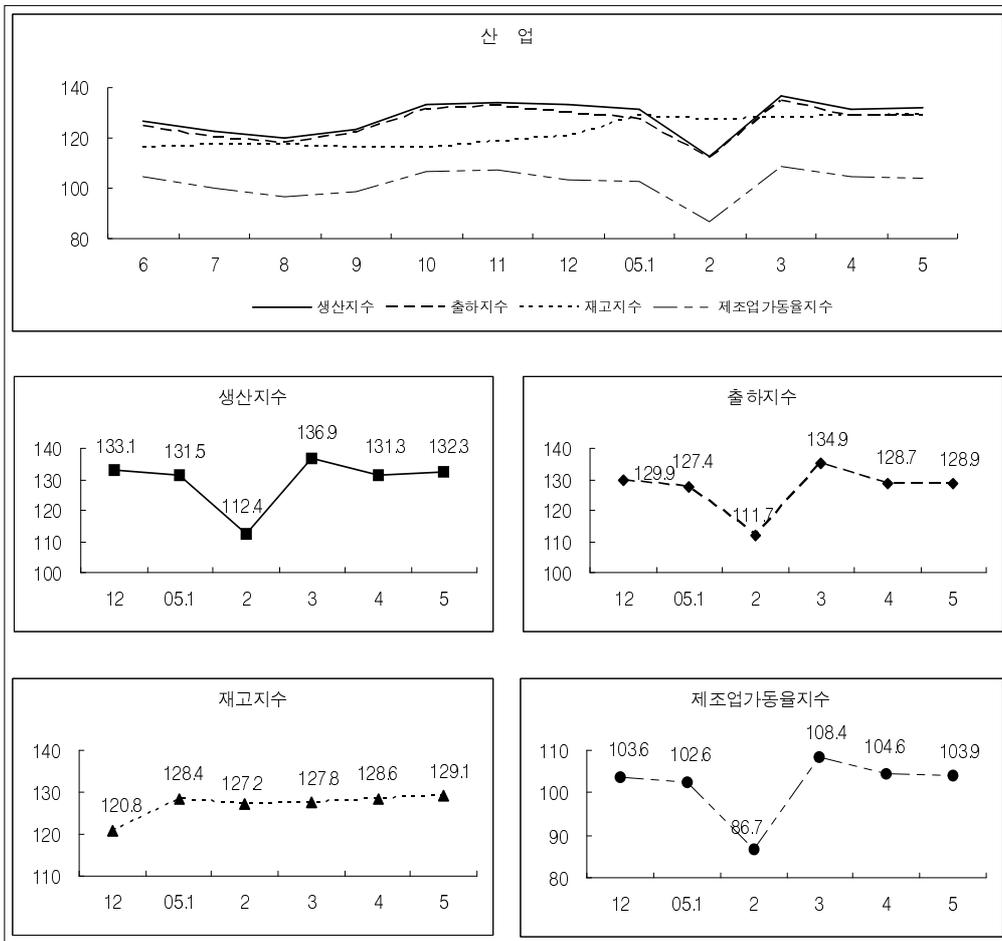
□ 정책과제

- 한국경제의 부문별 양극화 현상을 좁히기 위해서는 2005년 정부는 최대한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될 것임.
-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하여야 할 것임.

2. 경기

완만이 하강하고 있던 실물경기가 하강국면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중

(산업생산동향, 원지수, 2000=100)



자료: 통계청 KOSIS

□ 현황

- '05년 4~5월의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여 전분기(3.8%)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고 있음.
- 5월 중 생산 및 출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각각 4.3%, 3.6%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도 컴퓨터, 특수 산업용기계 등에 대한 투자증가로 7.7% 증가하였음. 도소매업판매지수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한 116.9를 기록하였음.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29.1(2000년 =100)로 반도체, 제1차금속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전월에 비해서는 3.4%p 증가함.
- '05년 4~5월 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분기(80.0%)에 비해 1.6%p 하락한 78.4%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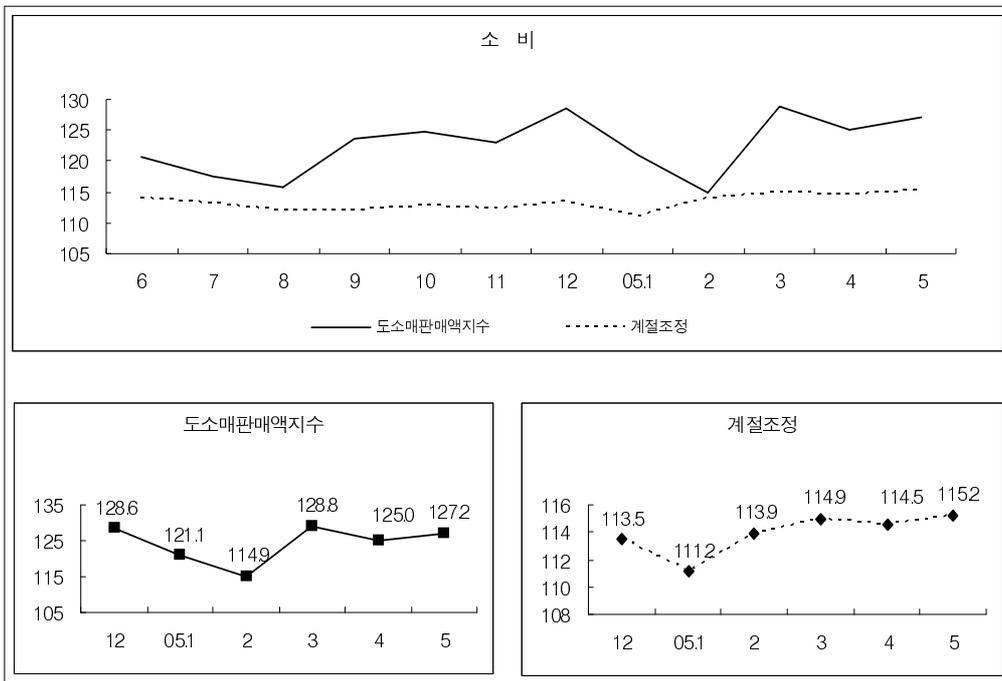
□ 전망

- '05년 5월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 건설기성액, 비농가 취업자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96.4)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6으로 전월보다 0.2p 증가하였음.
- 5월의 선행종합지수의 전년동월비는 건축허가면적, 제조업의 재고순환지표, 총유동성 등이 증가하여 선행종합지수가 전월보다 0.2%p 증가한 1.3%를 기록하여 경기가 하강국면에서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나타냄.

3. 소비

국내소비는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여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00=100)



자료: 통계청 KOSIS

□ 현황

- '05년 5월 중 도소매판매액지수는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와 도매업, 소매업에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한 127,2를 기록하였음.
- 한편, 소비자의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생활형편을 반영하는 소비자평가지수는 '04년 11월(62.8), 12월(62.2) 바닥을 친 후 '05년 1월, 2월, 3월(89.6), 4월(90.2) 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5월(85.5)과 6월(79.7)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어 소비자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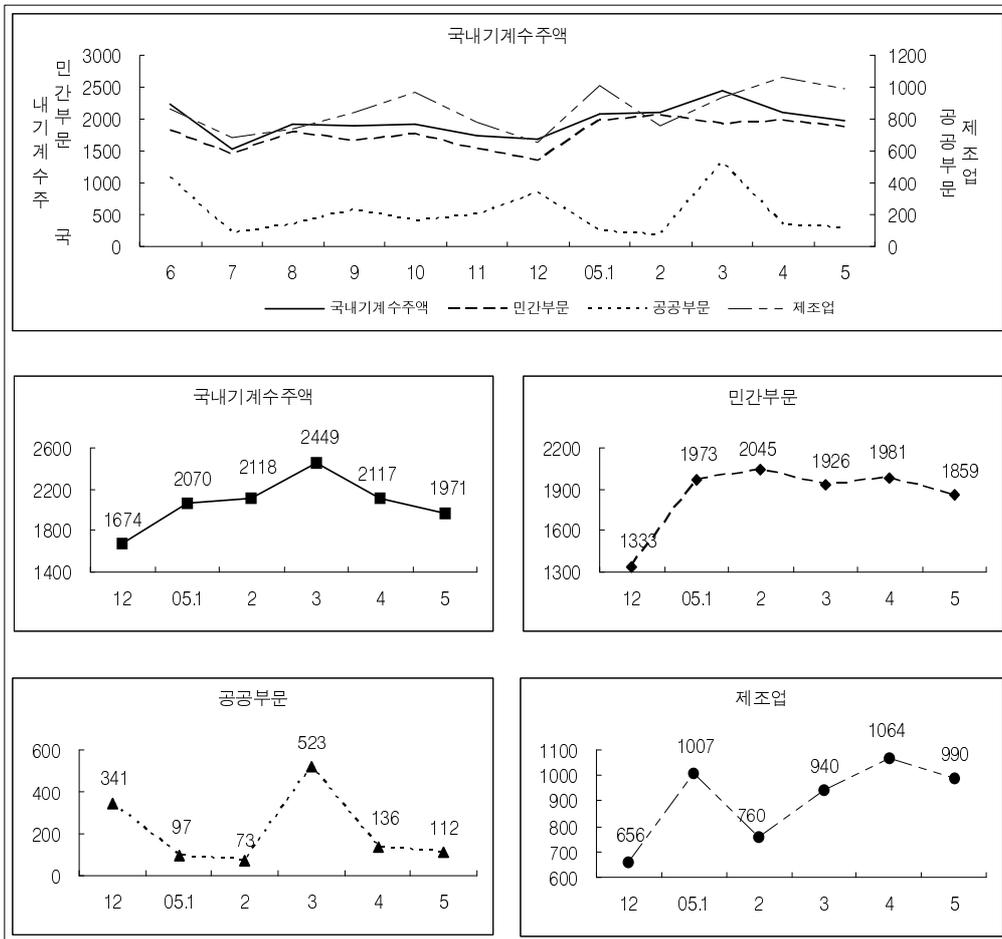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 역시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월 85.1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그 후 '05년 1월 90.3으로 반전된 후 2월 99.4, 3월 102.2로 정점에 도달한 후 4월에 101.3으로 감소한 후 5월(99.2)과 6월(95.4)들어 다시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여 낙관적인 기대가 꺾이는 양상을 보임.
- 최근 소비관련 지표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투자

4-1. 설비투자

설비투자 동행지표는 증가세를 선행지표는 감소세를 보여 불투명한 양상

(국내기계수주액, 단위: 십억원)



자료: 통계청 KOSIS

□ 현황

- 국내경기가 바닥을 통과하였다는 기대감으로 인하여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증가세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임.
- '05년 5월 중 설비투자는 4월의 감소세에서 반전되어 7.7% 증가하였는데, 이는 컴퓨터, 특수산업용 및 일반 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임.
- 또한 설비투자의 동행지표로 볼 수 있는 기계류 내수출하는 '05년 4월 및 5월 중 각각 0.1%씩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전기기계 등의 출하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임.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국내 기계수주도 최근 3~5월중 연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5월 중에는 14.7%의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공공부문이 47.7%의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기 때문임.

□ 전망

- 최근 국내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전망과 함께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선행지표를 보았을 때 아직 기업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 향후 설비투자의 큰 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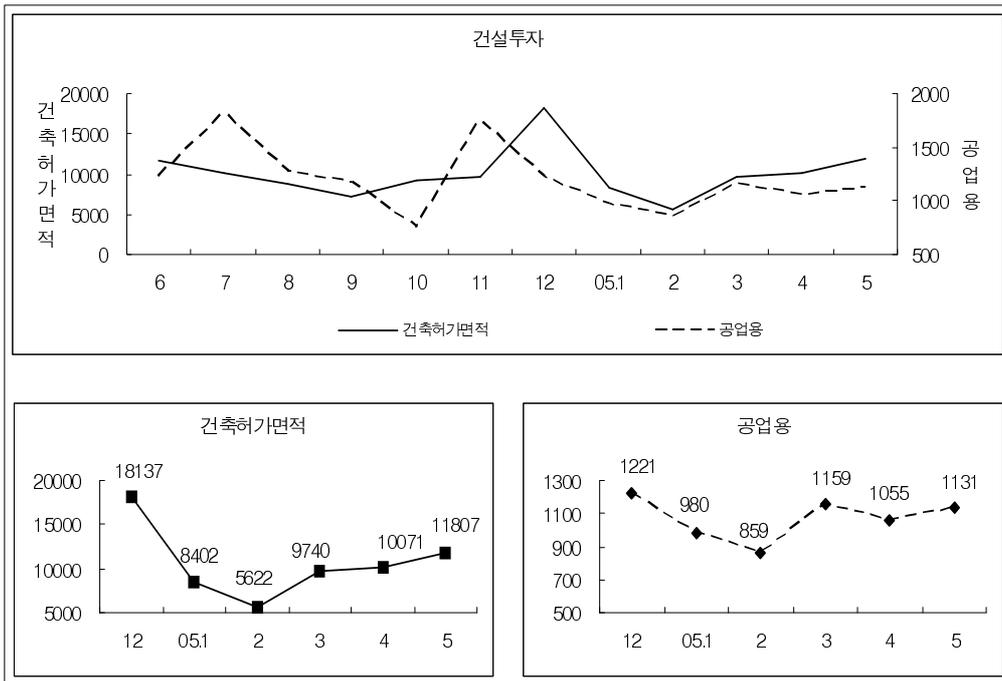
□ 정책과제

- 기업의 투자환경을 기업하기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 개혁과 더불어 정부정책의 신뢰성 증대, 내수 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임.

4-2. 건설투자

건설경기는 단기적 온도세를 보였으나 선행지표는 밝은 전망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자료: 통계청 KOSIS

□ 현황

- 건설경기의 동행지표로 볼 수 있는 건설기성액은 '04년 1/4분기 이후 지속된 증가세가 대체로 유지되면서 '05년 5월 중 10.8%의 증가를 보였음.
- 이는 공공부문이 전년동기대비 4.4% 소폭 증가한데 바하여 민간부문이 14.1%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 특히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05년 1/4 분기 중 24.8%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05년 5월에는 53.9%의 대폭적인 증가를 나타냈는데,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각 248.8%, 36.6% 증가하였기 때문임.
- 장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도 '05년 2월의 27.3% 감소를 바닥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월에는 4.8% 증가하였음.

□ 전망

- 건설경기의 단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05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축허가면적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건설경기는 다소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최근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 및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인하여 건설수주는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에서는 건설경기의 회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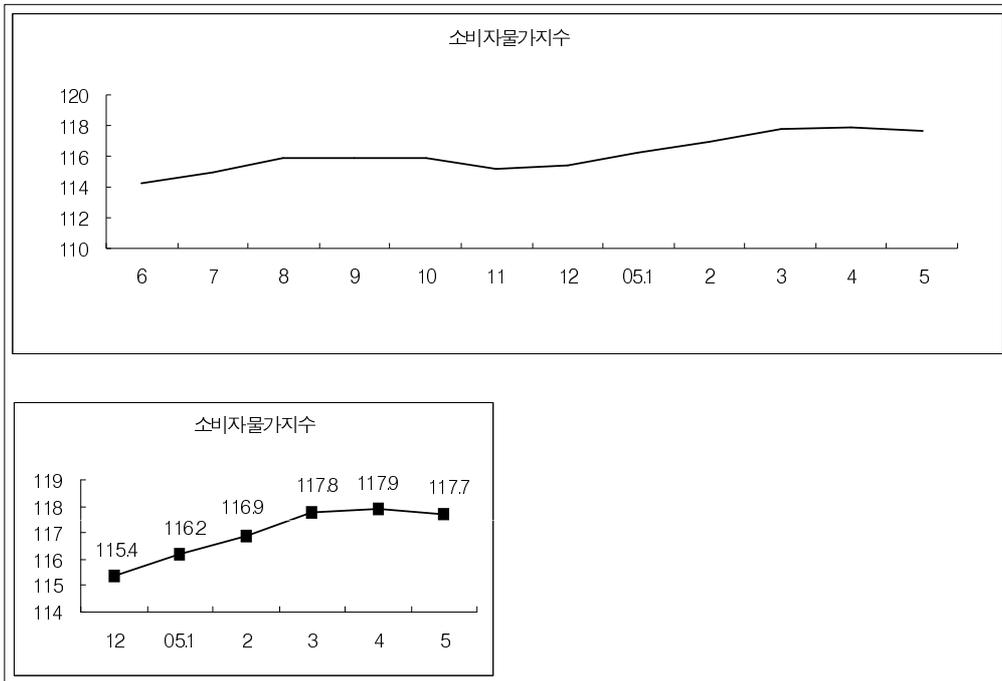
□ 정책과제

- 국내 건설경기가 공공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부분에서의 발주를 경기의 변동에 적합하게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조절하는 정책이 필요함.

5. 국내물가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원지수, 2000=100)



자료: <http://www.nso.go.kr/>

□ 현황

- 소비자물가지수는 5월중 117.7을 기록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05년 2/4분기 내내 보합세를 유지한 것은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한 내수소비 부족에 기인하였음.
- 6월중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 후반으로 둔화되었음.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수입물가가 증가하였고, 이것이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각종 서비스요금,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안정적이어서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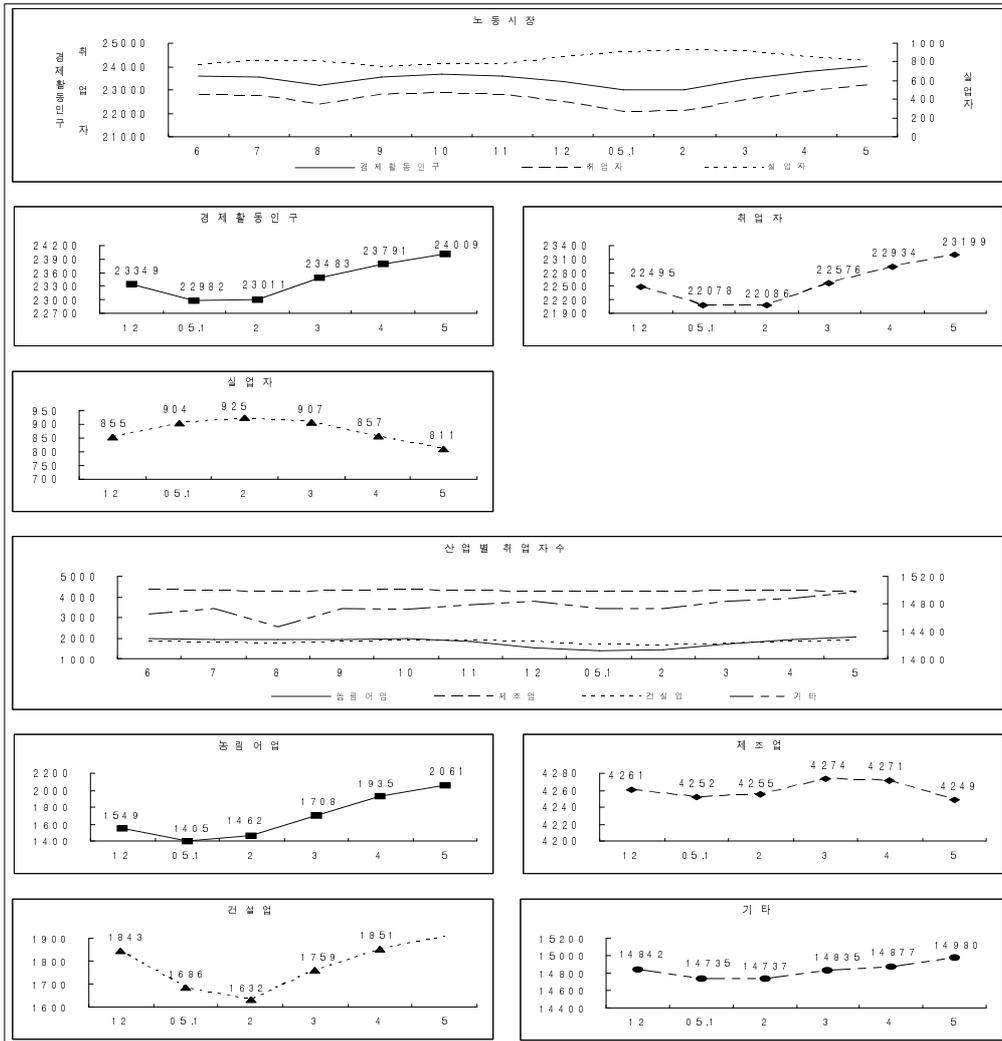
□ 전망

- '05년 3/4분기 중에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 불안정한 노동시장, 극심한 수급불균형의 주택시장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요인이 상존함. 특히,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로 인한 국내물가 상승압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6. 고용

국내 고용사정의 본격적 회복은 아직 기대하기 어려울 듯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단위: 천명)



자료 : 통계청 KOSIS

□ 현황

- 계절조정실업률은 '05년 2/4분기 3.7%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 0.1% 증가하여 노동시장이 다소 악화되었음.
- 노동시장의 활성화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은 '05년 2/4분기 중 62.7%를 보여 전년 동기에 비해 0.1% 증가하여 노동시장이 다소 활성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05년 2/4분기 중 취업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1.7% 증가한 2,316천명으로 노동시장의 팽박정도가 다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산업별 취업자분포를 보면, '05년 2/4분기 중 농림어업부문과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산업이 각각 2.5%, 2.3%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1.2% 감소하였음.

□ 전망

- '05년 2/4의 고용동향은 전체적으로는 취업자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근본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의 회복이 따르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3차 산업에의 고용증가 의존도가 매우 커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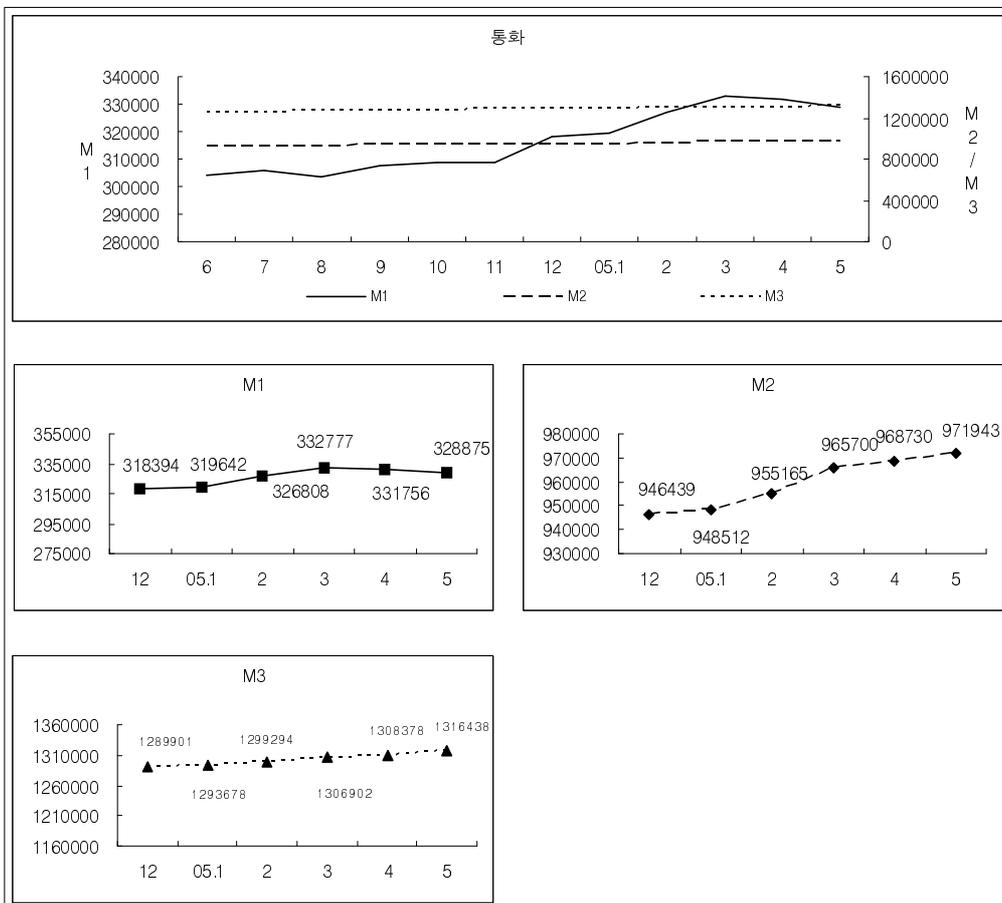
- 실업구조에 있어서 40세 이상의 장년실업자의 증가,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증가, 저학력 실업자의 증가 등 실업이 구조적이며 장기적 양상을 띠고 있음.
- 따라서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7. 금융

7-1. 통화

M1, M2, M3 통화량 모두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단위: 십억원)



주 : 신 M1(협의통화), M2(광의통화)

자료 : <http://www.bok.or.kr>

□ 현황

- 5월중 M1통화량은 328,875십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보합세를 유지하였고, M2통화량은 971,949십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M3통화량은 1,316,438십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보합세를 유지하였음.
- '05년 2/4분기 중 M1통화량의 보합세는 시중은행의 단기수신 증가와 같은 자금유입으로 인해, M3통화량의 보합세는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규모의 감소와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신용 증가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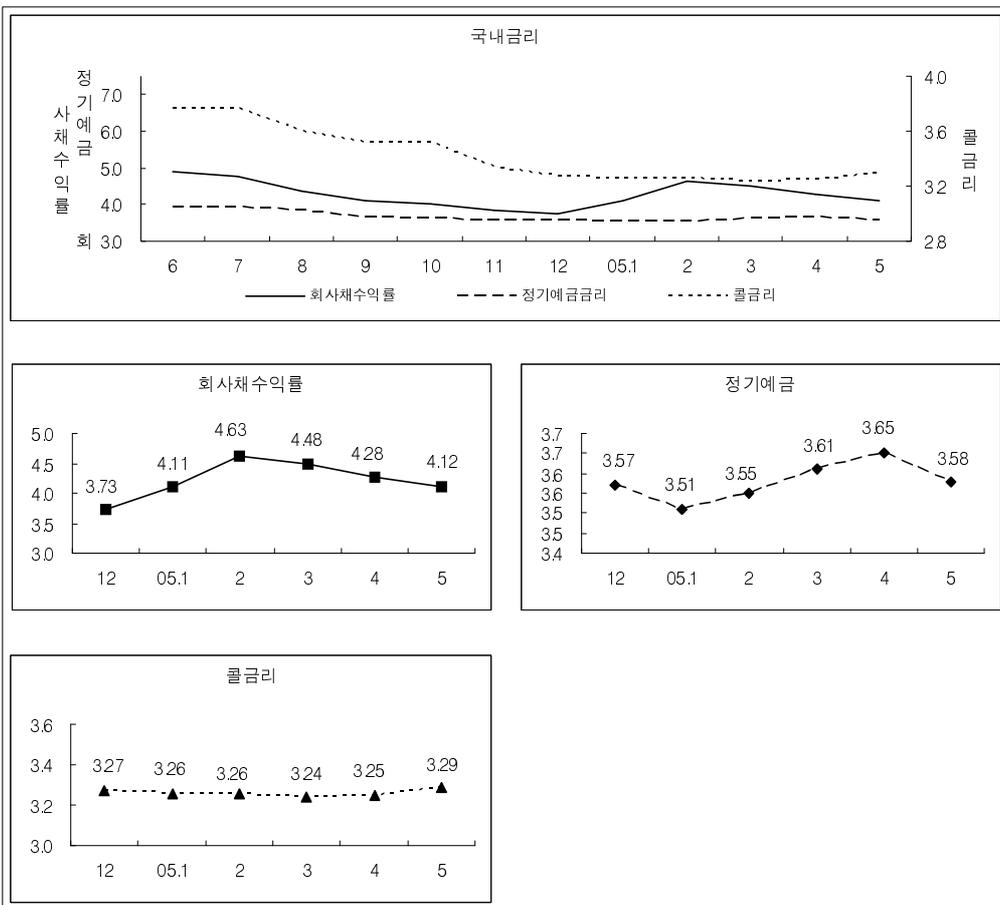
□ 전망

- 내수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는 경기상황과,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05년 3/4분기 중에 통화량은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국내 유동성이 가계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극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주택시장을 감안할 때 추가 가계대출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 또한 통화량의 보합세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7-2. 금리

소폭으로 상승할 전망

(단위: %)



자료 : <http://www.bok.or.kr/>

□ 현황

- 5월중 장기금리인 회사채수익률은 4.12%로 전월대비 0.16%p 하락하였고, 정기예금금리는 3.58%로 전월대비 0.07%p 하락하였으며, 콜금리는 3.29%로 전월대비 0.04%p 상승하였음.
- '05년 2/4분기 중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회사채수익률이 하락하였고,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자금의 증가로 정기예금금리도 하락하였음. 단기시장금리인 콜금리는 금융정책당국의 금융시장 개입으로 보험세를 유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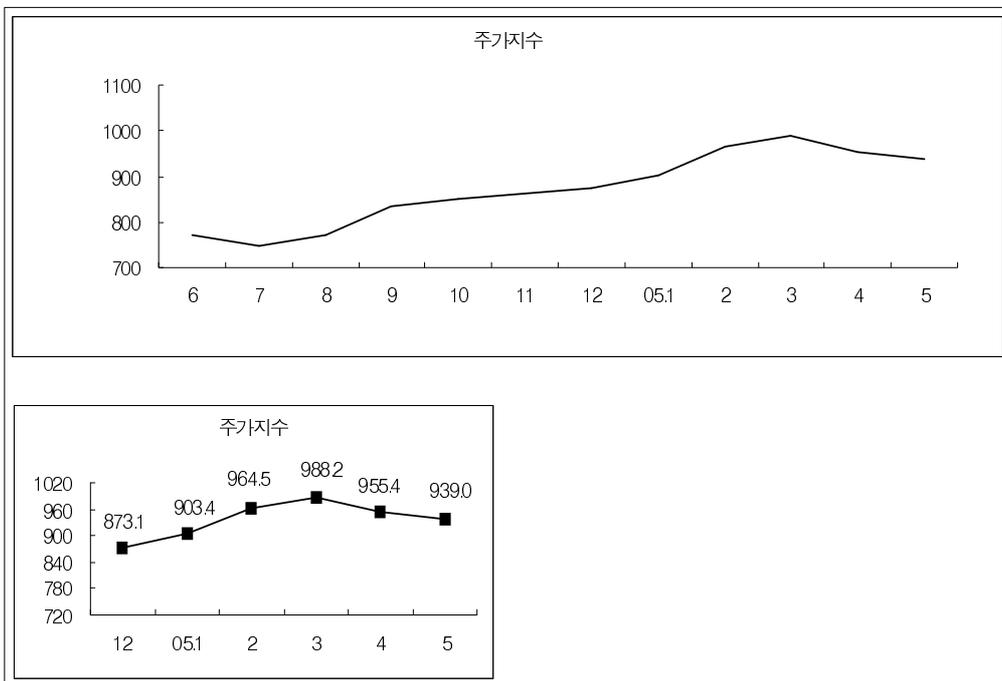
□ 전망

- '05년 3/4분기 중 회사채수익률은 부동산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는 통화당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형성과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선물매도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 콜금리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지만 장기금리가 상승세로 반전되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7-3. 주가지수

금융시장의 안정화로 상승세 유지 전망

(1980.1.4=100)



자료: <http://www.bok.or.kr/>

□ 현황

-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본의 꾸준한 유입으로 종합주가지수는 '05년 2/4분기 중에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즉, 5월중 종합주가지수는 939.0으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음.
- '05년 2/4분기 초반에 기업실적의 악화로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였지만, 그 후 외국인 순매수 및 적립식 펀드의 유입 증대로 후반에는 보합세를 유지하였음.

□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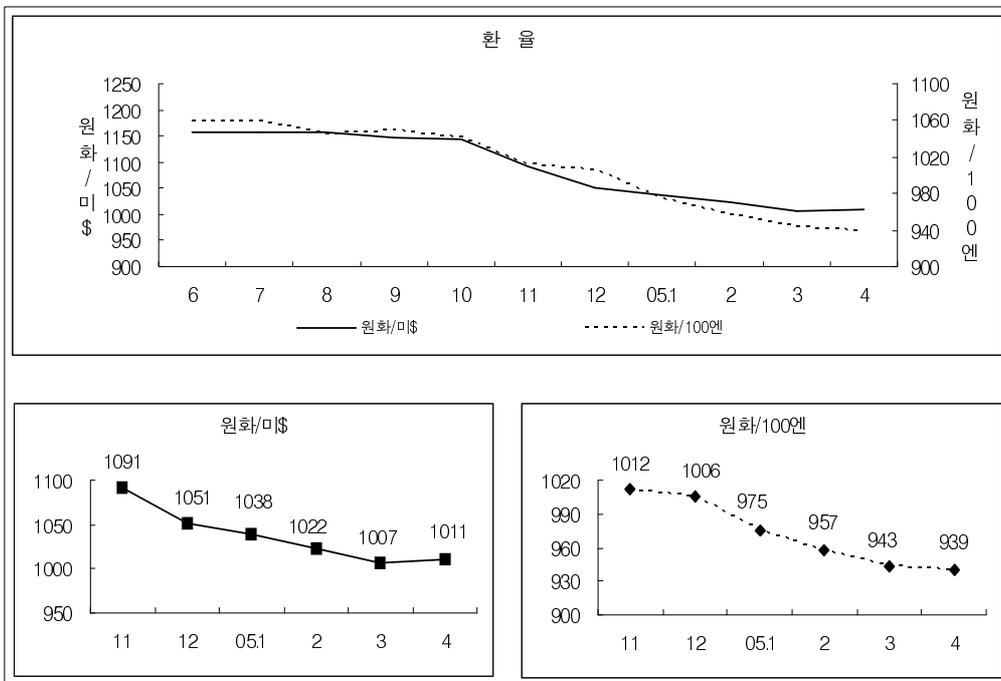
- '05년 3/4분기 중에 외국인 순매수 증가, 저금리 기조의 유지, 해외금융시장의 활성화, 적극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종합주가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연기금의 자산운용 확대와 적립식 펀드의 활성화 등도 주가지수를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8. 국제거래

8-1. 환율

강세기조를 유지할 전망

(단위: 원)



자료: <http://www.bok.or.kr/>

□ 현황

- 4월중 대미환율은 1,011원으로 전월대비 보합세를 유지하였고, 대일환율은 939원으로 전월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6월중 대미환율은 1,024.4원으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대일환율은 927.3원으로 전월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 국내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가의 환율정책으로 '05년 2/4 분기 중 주요국 원화환율이 보합세 또는 소폭 하락세를 유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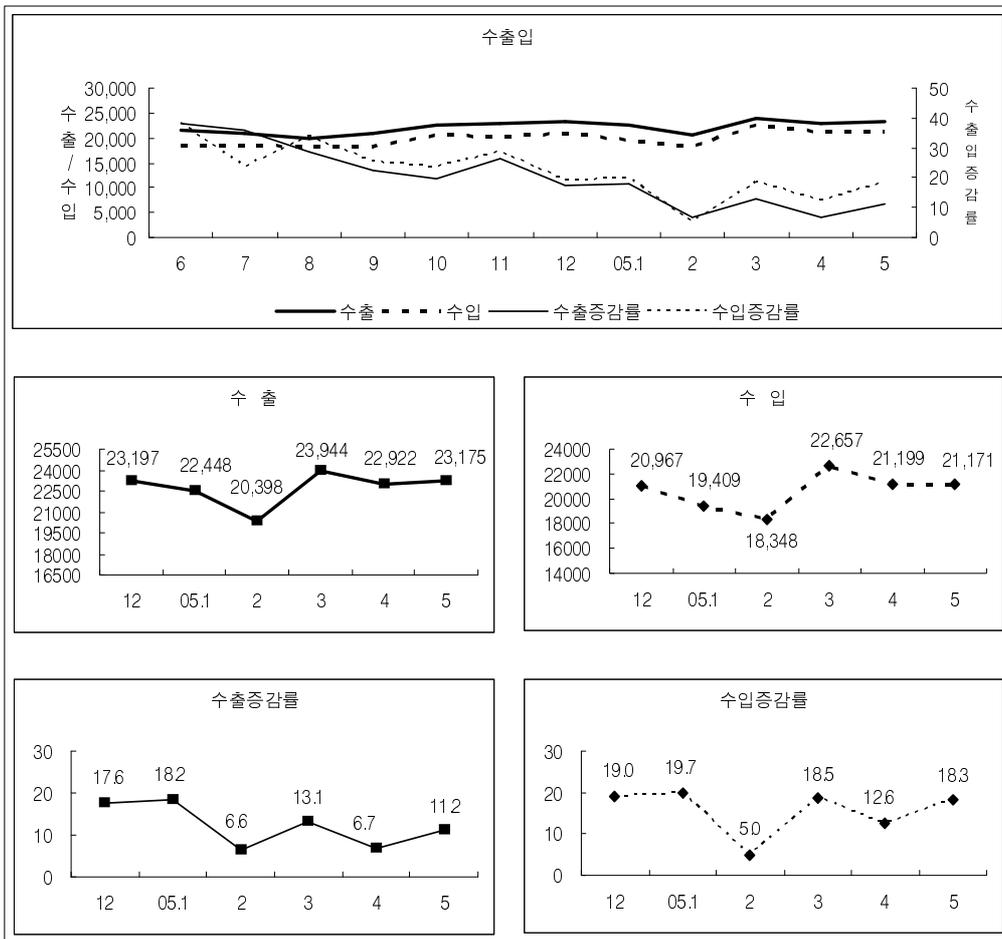
□ 전망

-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외환보유고 증가로 인한 외환공급능력 확대 등과 같은 요인으로 '05년 3/4분기 중 원화환율은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 약세 정책과 일본경제의 회복세를 반영하여 엔화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8-2. 수출입

수출입 모두 소폭으로 상승할 전망

(단위: 백만불, %, FOB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현황

- 5월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23,175백만불, 21,171백만불로 전월대비 보합세를 유지하였음. 수출은 반도체를 비롯한 IT관련 품목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원유 및 기타 원자재의 높은 가격 때문에 수입 증가율은 소폭 상승하였음.
- 품목별로는 IT관련 품목의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자동차, 철강제품, 석유화학 등은 호조세를 유지하였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미국 수출은 감소세가 확대되었지만,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유지하였음.

□ 전망

- '05년 3/4 분기 중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요의 호조가 예상되어 수출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유가상승이나 원화절상 등의 영향으로 수입도 증가가 예상되며, 증가폭은 수출을 상회할 전망이다.

III. 세계경제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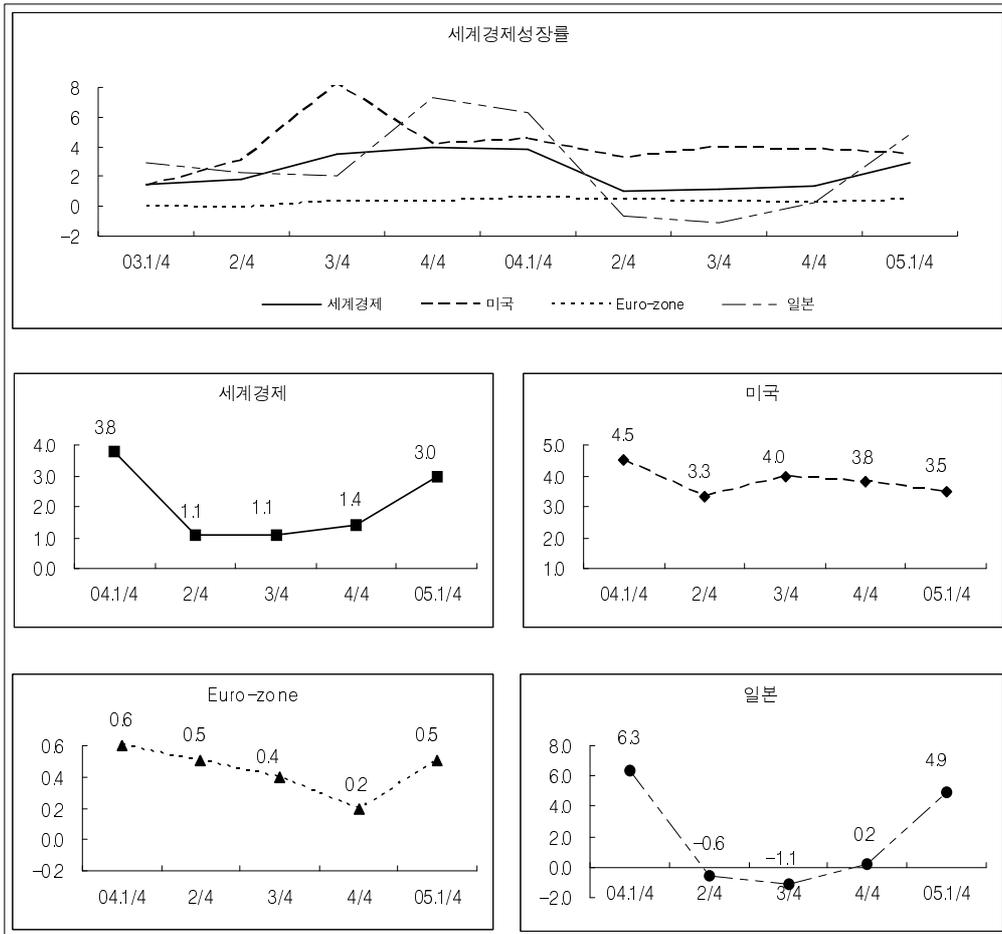
지 표		동 향	전 망
경 제 성 장 률		고유가에 의해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는 다소 둔화	
국 제 유 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지속적 상승세 유지	
국 제 금 융	국 제 금 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주 요 국 주 가 지 수	미국은 하락세, 프랑스와 일본은 상승세	

주:  호전,  다소 호전, — 현상유지,  다소 악화,  악화

1. 세계 경제성장률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불변 GDP기준, 계절조정, 전기비, 단위: %)



자료 : <http://www.cao.go.jp/>
<http://europe.eu.int/en/comm/eurostat/>
<http://www.bea.doc.gov/bea/>

□ 지역별 현황과 전망

- 미국경제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소비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과 자본지출 역시 둔화세를 시현하고 있어 2005년에는 2004년 성장률(4.4%)에 못 미치는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경제는 높은 실업률로 소비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나, 수출이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2004년의 1.8% 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 10년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 2004년 2.7% 성장하였던 일본경제는 올해 들어 수출과 소비의 부진 지속과 생산과 설비투자도 조정을 받음에 따라 2005년에는 1%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중국경제는 정부의 투자과열 억제정책으로 높은 투자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내수와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 위안화의 2% 평가절상으로 경제는 안정을 찾아 2005년에는 2004년 성장률(9.5%)을 하회하는 8%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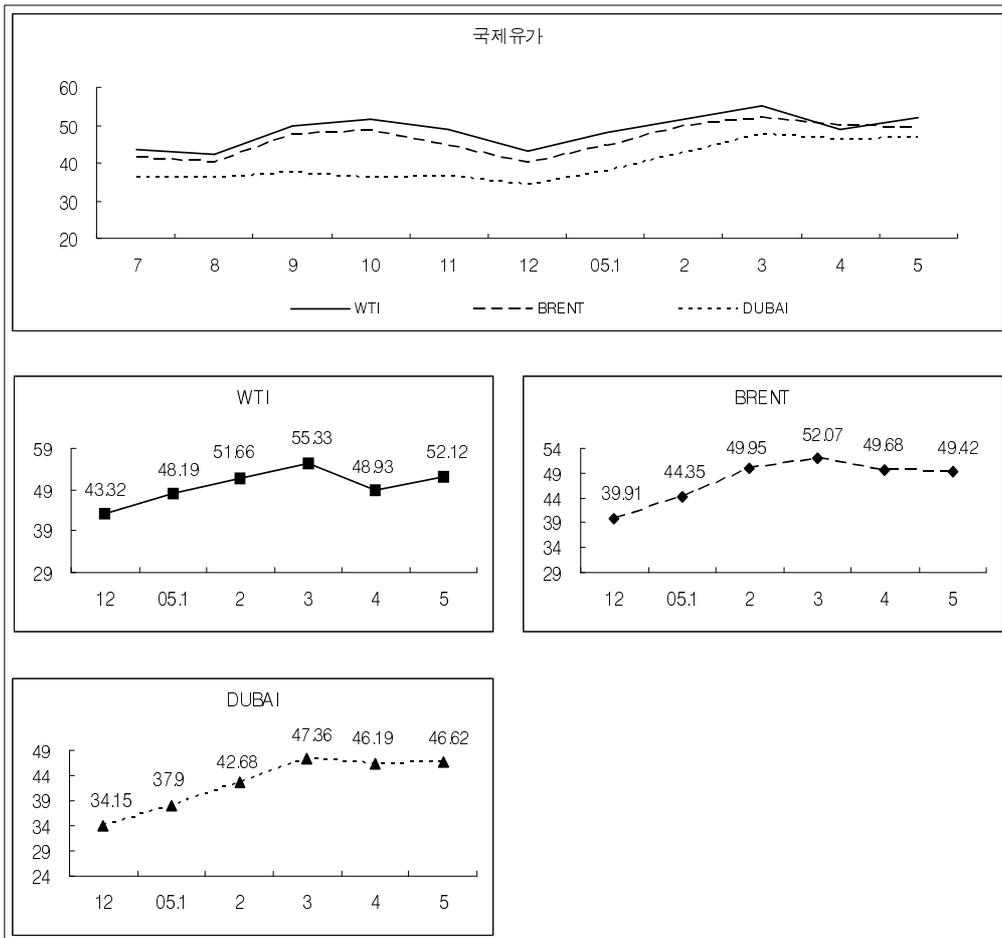
□ 전망

- 2005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유가가 지속되고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성장률은 2004년보다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4% 성장률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2. 국제유가

50bbl/\$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야

(단위: \$/Bbl)



자료: <http://www.mofe.go.kr/>

□ 현황

- '05년 7월 15일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두바이유는 51.99\$/bbl로 최근 7월 8일 55.77\$/bbl의 사상최고치 보다는 다소 하락하였지만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음.
- 최근 멕시코만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중간유분 재고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 석유수요의 감소 전망 등으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국제적인 테러의 확산으로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정세의 혼미로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전망

- 최근 이란의 핵개발 저지, 이라크 사태를 둘러싼 국제테러의 확산 등 중동 지역에서의 불안요인이 가세하면서 석유 공급 상의 애로요인 증가는 유가 상승을 부추길 요인으로 보임.
- 그러나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하절기 석유수요의 둔화 등으로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과거와 같은 급격한 유가하락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문기관에서의 유가전망이 고유가 시대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두바이유 국제유가는 50\$/bbl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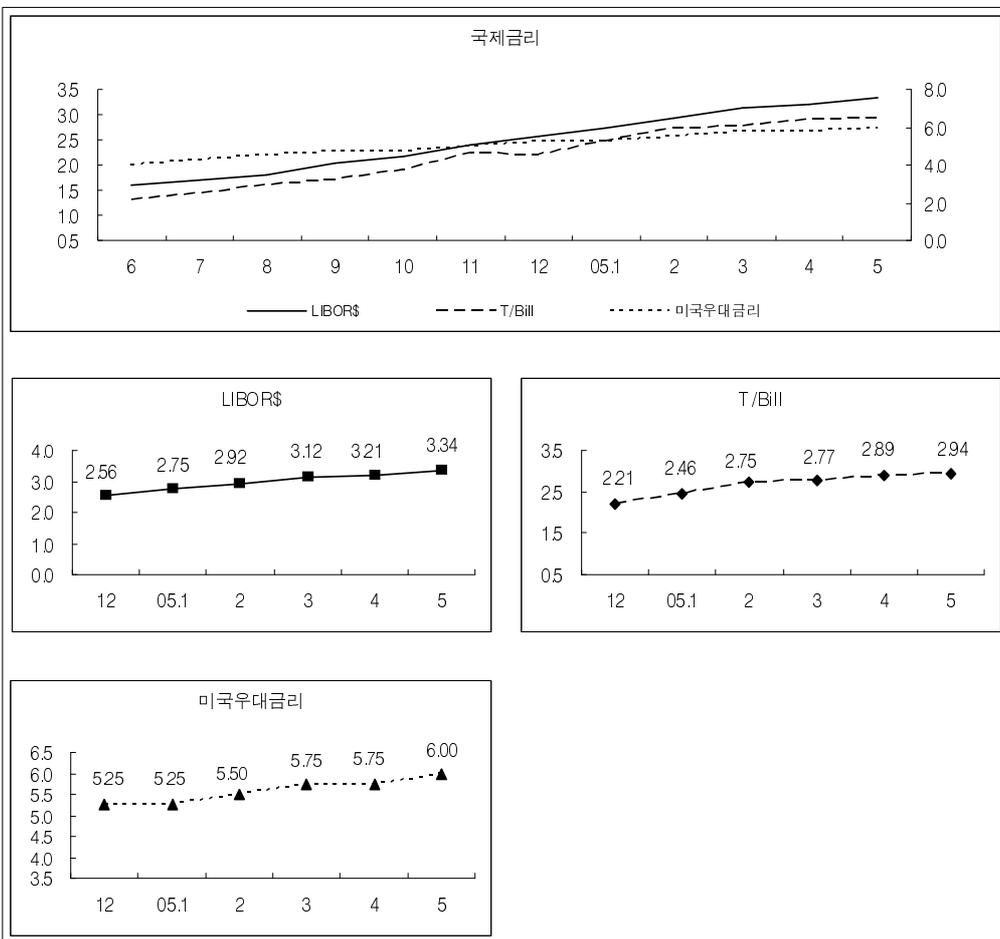
- 국내경제구조에서 원유의존도를 낮추고 천연가스 및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주력해야할 것임.

3. 국제금융

3-1 국제금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될 전망

(LIBOR\$(3개월물), T/Bill, 단위: %)



자료 : <http://www.mofe.go.kr/>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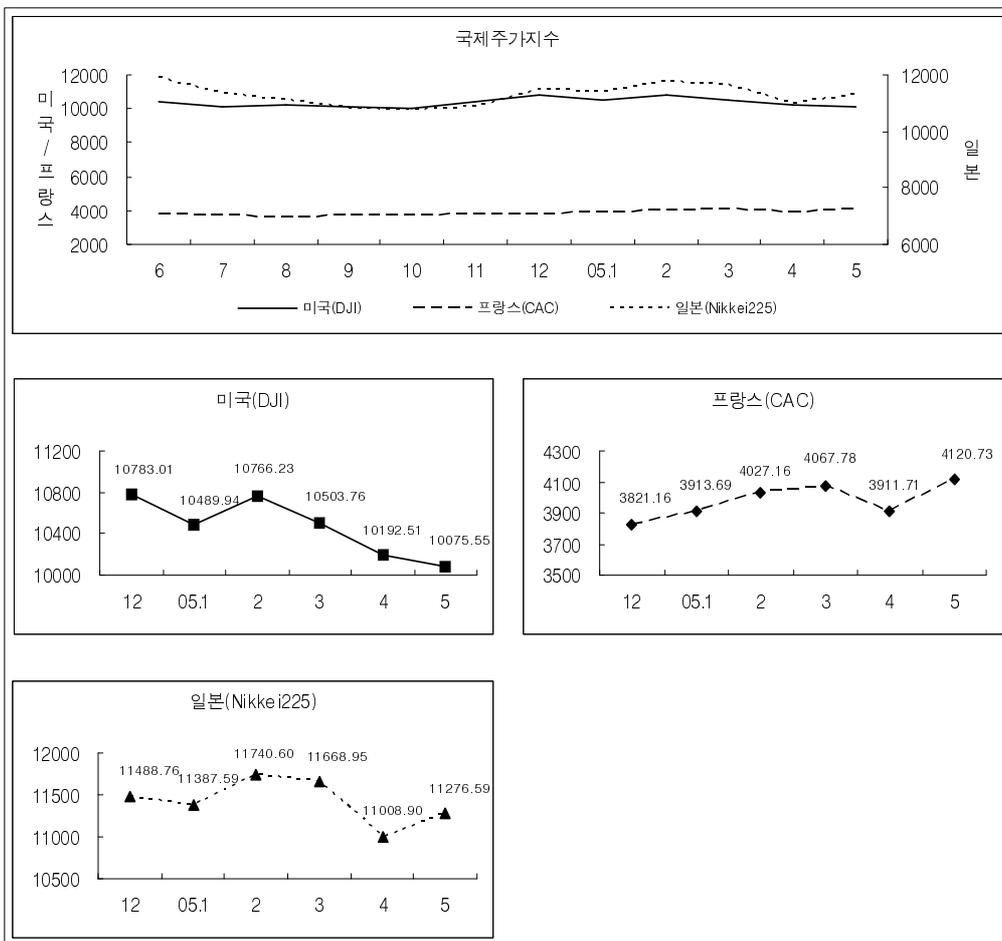
- 국제표준금리인 LIBOR\$는 5월중 3.34%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13%p 상승하였고, T/Bill은 2.94%로 전월대비 0.05%p 상승하였으며, 미국 우대금리는 6.00%로 0.25%p 상승하였음.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05년 2/4분기 중에 국제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기조를 유지하였음. 특히, 미국의 경우 큰 규모의 쌍둥이적자 속에서도 T/Bill이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 전망

- 세계경제가 '05년 3/4분기 중에도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05년 2/4분기의 금리가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05년 3/4분기 중에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3-2 주요국 주가지수

DJ지수는 상승세, CAC지수와 Nikkei225지수는 보합세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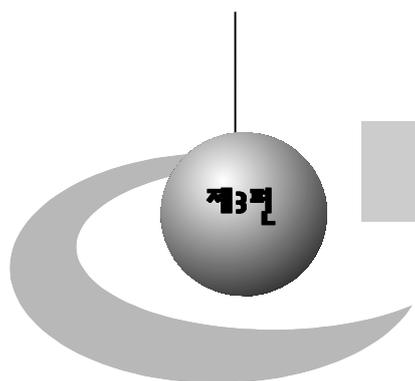
자료 : <http://finance.yahoo.com/>

□ 현황

- 5월중 미국의 DJI지수는 10,075.55로 전월대비 1.15% 하락하였고, 프랑스의 CAC지수는 4,120.73으로 5.34% 상승하였음. 일본의 Nikkei225지수는 11,276.59로 전월대비 2.43% 상승하였음.
- '05년 2/4분기 중에 일본과 유럽 주요국가의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 세계 주요국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미국의 경우 달러약세로 DJI지수는 하락세를 유지하였음.

□ 전망

- '05년 3/4분기 중에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CAC지수와 일본의 Nikkei225지수는 '05년 3/4분기 중에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그러나 '05년 2/4분기 중에 미국의 DJI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05년 3/4분기 중에는 반등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특 집 >
충북거시계량모형(LBQEM2004)

충북거시계량모형(LBQEM2004) 61

- I. 서론
- II. 충북지역 거시계량모형의 설정 및 추정
- III. 결론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고의 연구목적은 충북지역의 단기 및 중기 경제예측과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충북경제의 분기 거시계량모형을 개발하는 것임.
- 1980년대 중반까지 충북의 경제구조는 수도권과 경남·북 지역 등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였으며 성장률도 낮았으나 1980년대 말부터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충북이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1·3위의 성장률을 기록
-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7년 2.8%에서 2003년에는 3.3%로 상승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충북의 1인당 소득이 전국 평균을 상회
- 성장과정에서 충북경제는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음.
- 1985년 충북생산의 22.1%를 차지하였던 농림어업의 비중은 2003년에는 6.3%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중 54.3%에서 50.4%로 소폭 하락한 반면, 광공업의 비중은 22.0%에서 42.6%로 급격히 상승
- 전국 수출액에서 충북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5년 0.86%에서 2004년 2.97%로 장기적인 신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 139만 명이었던 인구가 2004년 150만 명으로 늘어났고, 경제활동인구도 같은 기간 중 55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증가
-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충북지역의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충북 경제구조가 급변하고 산업 생산, 소득, 고용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경제구조를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정치하게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음.
- 본고가 기존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표본기간을 2004년까지 확대해 최근의 충북경제 구조변화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였음.
- 둘째, 개별 방정식의 설명변수로서 입수가 가능한 충북 지역 고유의 변수들을 최

대한 고려하였음.

- 셋째,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성장률, 고용, 물가, 실업률, 수출입, 환율 등을 외생변수로 포함시켜 총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2. 국내외 연구동향

1) 해외 연구동향

- 해외에서의 지역경제 거시계량모형에 대한 연구는 Klein(1969)과 L'Esperance, Nestel and Fromm(1969)으로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
 - Klein(1969)과 L'Esperance, Nestel and Fromm(1969) 모형은 미국의 주별 지역총생산을 추정하고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이들은 지역경제가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지역경제 변수들은 전체 국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전체 국민경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
 - 이들 모형에서는 지역경제모형이 국민경제모형에 바로 연결되어, 국민경제모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가 지역경제모형에서는 외생변수로 도입되게 됨.
 - 1970년대에 개발된 지역경제모형들도 Klein(1969) 모형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Anderson(1970)과 Hall and Licari(1974)의 지역경제모형, 미시시피주 지역경제모형을 개발한 Adams, Brooking, and Glickman(1975), Klein and Glickman(1977), Glickman(1978) 모형이 이에 속함.
 - 1980년대에는 Klein(1969)류의 모형에서 진일보하여 지역내의 다양한 산업간의 상호작용을 경제모형에 도입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는데, Hafkamp(1984), Weber(1986), Conway(1989), Murthy(1992) 등의 지역경제모형이 이에 속함.

2) 국내 연구동향

-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모형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중반 태동되기 시작하였으며, 분석모형으로는 거시계량모형(macroconometric model), 산업연관모형(input-output model), 연산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이 주로 이용되고 있음.
- 나호수(1993)와 정병우(1994)는 각각 부산과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거시계량모형을 개발하였으나, 이들의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생산과 고용 등 소규모 행태방정식을 분석하는데 그침.
- 김의준·천현숙(1994)은 수도권 지역경제를 생산, 교역, 수요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간 연계성을 반영하는 다부문 연산 일반균형 지역경제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김의준·김갑성(1998)도 연산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14개 지역의 경제모형을 개발
- 한영준·김의준·윤정노·이호준(1999) 및 이세구(2000) 등도 연산 일반균형모형에 기초한 중장기 서울지역 경제모형을 구축한 바 있음.
- 김태보·현학정·강희수(1995)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고종환·김현용(1996)은 부산지역의 산업연관모형을 통해 부가가치와 총생산액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춘근(2001)은 산업연관모형을 작성하고 이로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를 분석
- 최근에 강동희(2000)는 전북지역 총생산량 변동요인을 총공급 충격, 총수요 충격, 지역 고유의 충격으로 나누어 각 충격의 동태적 파급효과와 지역생산량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구조 벡터자기회귀모형(: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통하여 추정
- 조병세(1993)는 산업연관모형과 거시경제모형을 결합한 연산 일반균형모형을 통하여 충청권의 거시경제 변수와 산업구조를 분석하였고 그 이후 이종철(1995)은 산업을 9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을 추정하였으나 분석기간이 1985~1991년의 7년에 불과하여 자유도가 극히 낮으며 1990년대 충북경제의 변화모습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 김성태·정초시·이현재·노근호(1996)는 표본기간을 1970~1994년으로 확장하여 충북경제의 연간 계량모형을 추정하였음. 이들의 연구는 이종철(1995)에 비하여 모형의 설정 및 추정방법, 정책효과의 분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일보하였으나, 여전히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충북경제의 구조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최근에 김성태·노근호·이현재·정초시(2001)는 1999년까지 확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충북경제 거시계량모형을 추정하였음. 이들의 연구는 분기별 지역내총생산을 추정해 분기 거시경제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높으며, 지역경제모형의 설정에 대한 연구에 크게 기여
- 그러나 추정기간이 1999년에 그치고 있어 2000년대의 변화모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들의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충격효과를 분석하거나 전망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II. 충북지역 거시계량모형의 설정 및 추정

- 지역의 거시계량모형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의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음.
- top-down 방식은 지역경제모형을 마치 인공위성 시스템과 같이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지역경제 변수들이 국민경제 변수들에 일방적으로 연결되며 국민경제 변수들과 지역경제 변수들간에는 상호 의존성이나 피드백(feedback)이 존재하지 않음.
- 즉, 국민경제 모형에서 추정되거나 예측된 변수들이 지역경제 모형에 외생적인 설명변수로 도입되어 설정하기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음.
- bottom-up 방식은 국민경제 변수들과 지역경제 변수들 쌍방간의 상호 의존성을 감안하여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지역경제모형을 설정한 후, 이들 지역경제 변수들을 합하거나 평균함으로써 국민경제 모형이 얻어짐.
- 이 방식은 지역간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경제변수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감안하므로 지역경제변수와 국민경제 변수들이 상호간의 피드백에 의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이 방식은 자료의 제약 등으로 설정하기가 어렵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순수한 학문적인 관심사나 연구목적에 적합함.
- 본고의 충북지역 경제모형은 top-down 방식에 따라 설정하였음.
- 충북의 거시계량모형은 통계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생산, 산업별 고용, 물가, 금융, 해외 등의 5개 부문으로 구성.
- 지역경제모형에 이들 5개 부문 이외에 임금, 인구, 재정부문을 추가할 수 있으나 지역별 제조업 임금, 인구 및 출생·사망률, 세입·세출 자료들이 연간으로만 발표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들 3개 부문은 분기모형을 다루는 본고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음.
- 현재 거시계량모형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케인지언 총수요 경제이론에 따라 소비, 투자, 정부, 대외 부문으로 구분하는 모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지역 단위의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이출에 대한 자료는 1995년 이후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다는 자료상의 문제점이 있어 공급중시(supply-side) 모형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

□ 모형에 포함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내생변수

변수	변수명	주기 / 단위 / 기간	출처	
생 산 물 류	<i>GRDP</i>	충북 지역내총생산	연간, 실질, 백만원, 1985-2003	통계청
	<i>GRDP1</i>	충북 1차 산업 생산	연간, 실질, 백만원, 1985-2003	통계청
	<i>GRDP2</i>	충북 2차 산업 생산	연간, 실질, 백만원, 1985-2003	통계청
	<i>GRDP3</i>	충북 3차 산업 생산	연간, 실질, 백만원, 1985-2003	통계청
	<i>IP</i>	충북 산업생산지수	월간, 2000=100, 1985-2004	통계청
고 용 물 류	<i>EM</i>	충북 총 취업자 수	월간, 천명, 1989-2004	통계청
	<i>EM1</i>	충북 1차산업 취업자 수	월간, 천명, 1989-2004	통계청
	<i>EM2</i>	충북 2차산업 취업자 수	월간, 천명, 1989-2004	통계청
	<i>EM3</i>	충북 3차산업 취업자 수	월간, 천명, 1989-2004	통계청
	<i>UR</i>	충북 실업률	월간, %, 1989-2004	통계청
물 가	<i>CPI</i>	충북 소비자물가지수	월간, 2000=100, 1990-2004	통계청
금 융	<i>DE</i>	충북 총예금	월간, 백만원, 말잔, 1989-2004	한은 청주지점
	<i>LO</i>	충북 총대출	월간, 백만원, 말잔, 1989-2004	한은 청주지점
	<i>RDB</i>	충북 어음부도율	월간, 백만원, 말잔, 1989-2004	한은 청주지점
해 상	<i>EX</i>	충북 상품수출	월간, 경상, 백만달러, 1990-2004	한국무역협회
	<i>IM</i>	충북 상품수입	월간, 경상, 백만달러, 1990-2004	한국무역협회

○ 외생변수

변 수	변 수 명	주기 / 단위 / 기간	출 처
AT	충북 농산물거래량	월간, 1985.1-2004.12	충청북도
BSI	충북 기업실사지수	월간, 1987.3-2004.12	한국은행
CA	충북 건축허가면적	월간, 천 m ² , 1988.1-2004.12	충청북도
CI	충북 경기동행지수	월간, 1989.1-2004.12	충북개발연구원
CPI ^N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월간, 2000=100, 1985.1-2004.12	통계청
DUM024	더미변수	2002. 4/4 분기 = 1	
DUM032	더미변수	2003. 2/4 분기 = 1	
DUM_EM2	2차산업 취업자 수 방정식의 더미	2003. 1/4~3/4 분기 = 1	
DUM_EM3	3차산업 취업자 수 방정식의 더미	2003. 1/4~2/4 분기 = 1	
DUM_EX1	수출 방정식의 더미	2000. 1/4~2001. 2/4 분기 = 1	
DUM_EX2	수출 방정식의 더미	2003. 1/4 분기 = 1	
DUM_IM	수입 방정식의 더미	2000. 4/4~2001. 2/4 분기 = 1	
EC	충북 전력사용량	월간, 백만 Kwh, 1989.1-2004.12	한국전력
ER	원/달러 환율	월간, 평균환율, 1985.1-2004.12	한국은행
EX ^N	전국 수출액	월간, 백만달러, 통관기준	무역협회
IM ^N	전국 수출액	월간, 백만달러, 통관기준	무역협회
GDP	국내총생산	분기, 실질, 십억원, 1985-2004	한국은행
GDP1	전국 1차 산업 총생산	분기, 실질, 십억원, 1985-2004	한국은행
GDP2	전국 2차 산업 총생산	분기, 실질, 십억원, 1985-2004	한국은행
GDP3	전국 3차 산업 총생산	분기, 실질, 십억원, 1985-2004	한국은행
Li	예금금리	연율, %, 1996.1-2004.12	한국은행
NPTR	충북 순생산물세	연간, 실질, 백만원, 1985-2003	통계청
PGRDP	충북 GRDP 디플레이터	연간, 2000=1000	통계청
PL	충북 지가지수	2000=100, 전분기 대비 상승률 1989.1-2004.4	토지공사
PS	충북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월간, 2000=100, 1989.1-2004.4	통계청
NW	충북 제조업 명목임금	연간, 1인당, 백만원	통계청
NW ^N	전국 제조업 명목임금	연간, 1인당, 백만원	통계청
SI	충북 대형 소매점 판매액	월간, 백만원	통계청
UR ^N	전국 실업률	월간, %, 1985.1-2004.12	통계청

주: 변수 뒤에 첨부된 상첨자 N(national)은 전국 변수임을 나타냄.

1. 생산부문

1) 농림어업 생산액

- 충북 1차 산업(농림어업) 생산액의 추정결과 전체적으로 본고에서 설정한 모형의 설명력이 높음.
- 충북지역 1차 산업 생산액이 지역 내 경기변동보다는 전국 1차 산업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외생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begin{aligned} \log(\text{GRDP1}) &= 0.8167 + 0.1813\log(\text{GRDP}(-1)) + 0.0918\log(\text{EM1}) \\ &\quad (0.60) \quad (2.40) \quad (1.89) \\ &+ 0.9987\log(\text{GDP1}) - 0.0170\text{DUM3} \\ &\quad (170.41) \quad (-1.57) \\ \text{AR}(0) &= 0.7594\text{AR}(1) \\ &\quad (8.19) \end{aligned}$$

$$\bar{R}^2=0.9982, \quad DW=1.81, \quad F=5729.99$$

단, 모든 추정방정식에서 변수 뒤의 (-1)은 1기 래그, 괄호 안은 t-통계량, DW는 더빈-왓슨(Durbin-Watson) 통계치를 나타낸다. AR은 오차항의 1차 자기상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ochrane-Orcutt의 반복 추정기법을 적용한 경우의 오차항을 나타내기로 한다. 즉, $\varepsilon_t = \rho\varepsilon_{t-1} + \eta_t$ 에서 AR(0)은 ε_t , AR(1)은 ε_{t-1} 을 표시한다.

2) 광공업 생산액

- 광공업 GRDP의 추정결과 GDP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계수 값이 1.3767로 나타나고 있어 충북의 제조업 생산액이 우리나라 경기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

$$\begin{aligned} \log(\text{GRDP2}) &= -3.6140 + 0.2102\log(\text{EM2}) + 0.0749\log(\text{EX*ER/PGRDP}) \\ &\quad (-5.16) \quad (1.98) \quad (1.91) \end{aligned}$$

$$\begin{aligned}
 &+ 1.3767\log(GDP) - 0.0815DUM2 - 0.1271DUM3 - 0.2139DUM4 \\
 &\quad (14.90) \quad (-6.66) \quad (-9.27) \quad (-12.98) \\
 &AR(0) = 0.4837AR(1) \\
 &\quad (3.64)
 \end{aligned}$$

$$\bar{R}^2=0.9904, \quad DW=1.8486, \quad F=797.5514$$

3) 산업생산지수

- 충북의 2차 산업 중 반도체, 휴대폰 등 IT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원화표시 실질수출액을 독립변수에 추가한 결과 원화표시 실질수출액의 계수 값은 0.12로 추정되었고 t-값 또한 2.66으로 1%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begin{aligned}
 \log(IP) &= -1.6756 + 0.5895\log(IP(-1)) + 0.2454\log(EM2) + 0.1193\log(100*EX*ER*/CPI) \\
 &\quad (-1.92) \quad (5.25) \quad (1.80) \quad (2.66) \\
 &+ 0.0095TREND + 0.1474DUM2 + 0.057DUM3 + 0.1086DUM4 \\
 &\quad (2.97) \quad (6.03) \quad (2.67) \quad (4.60)
 \end{aligned}$$

$$\bar{R}^2=0.9904, \quad DW=1.6422, \quad F=872.09$$

4)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생산액

- 충북 3차 산업 생산액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수는 지역변수 보다는 우리나라 GDP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begin{aligned}
 d\log(GRDP3) &= 0.0142 + 0.3744d\log(EM3) + 0.0364d\log(CA) + 0.5597d\log(GDP) \\
 &\quad (4.20) \quad (2.50) \quad (4.47) \quad (14.7) \\
 &- 0.0467DUM4 \\
 &\quad (-6.29)
 \end{aligned}$$

$$\bar{R}^2=0.9286, \quad DW=2.1820, \quad F=189.5463$$

단, 모든 방정식에서 변수 앞의 d는 해당변수의 1차 차분을 나타냄. 일례로 $d\log(GRDP3)$ 는 $\log(GRDP3)$ 의 1차 차분, 즉 $GRDP3$ 의 증가율을 의미함.

2. 고용부문

1) 농림어업 취업자 수

- 충북 1차 산업 취업자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로 계수 값은 -0.35로 추정되었고, t-값 또한 -2.62로 나타나 5% 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수 값이 (-)로 추정된 이유는 1차 산업 취업자 수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임.

$$\begin{aligned} d\log(EM1) = & -0.222 - 0.3458d\log(EM1(-1)) + 0.064d\log(GRDP1) \\ & (-14.69) \quad (-2.62) \qquad \qquad \qquad (5.19) \\ & - 0.0897d\log(100*NW/CPI) + 0.4559DUM2 + 0.3573d\log(DUM3) \\ & (-0.70) \qquad \qquad \qquad (9.33) \qquad \qquad \qquad (5.63) \\ \bar{R}^2 = & 0.9423, \quad DW = 1.9148, \quad F = 177.4398 \end{aligned}$$

2) 광공업 취업자 수

-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계수 값이 0.74, t-값은 9.83으로 나타나 1% 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전분기 취업자 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위 노동계약의 관행이 광공업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begin{aligned} \log(EM2) = & 0.775 + 0.7441\log(EM2(-1)) + 0.1099\log(GRDP2) - 0.067\log(100*NW/CPI) \\ & (1.72) \quad (9.83) \qquad \qquad \qquad (2.59) \qquad \qquad \qquad (-1.33) \\ & + 0.0041DUM4 - 0.0874DUM_EM2 \\ & (0.35) \qquad \qquad \qquad (-3.79) \\ \bar{R}^2 = & 0.8582, \quad DW = 1.6346, \quad F = 67.5577 \end{aligned}$$

3)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취업자 수

-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계수 값은 0.54, t-값은 7.55로 1% 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충북의 3차 산업 노동시장 역시 2차 산업과 같은 노동계약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begin{aligned} \log(EM3) = & -1.2769 + 0.5372\log(EM3(-1)) + 0.2761\log(GRDP3) + 0.0125DUM2 \\ & (-4.51) \quad (7.55) \quad (6.33) \quad (2.92) \\ & - 0.0054DUM4 + 0.0317DUM_EM3 \\ & (-1.28) \quad (2.91) \\ AR(0) = & 0.5282AR(1) \\ & (3.65) \\ \bar{R}^2 = & 0.9918, \quad DW = 2.135, \quad F = 1153.691 \end{aligned}$$

4) 실업률

- 추정결과에 의하면 전국 실업률이 1%p 상승하면 충북 실업률이 0.36%p 상승하는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충북 경제가 소규모 지역경제로 전국적 경기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begin{aligned} UR = & 0.7248 + 0.4803UR(-1) - 0.029d\log(GRDP, 4) \\ & (3.55) \quad (6.43) \quad (-3.76) \\ & + 0.3634URN - 0.7981DUM2 - 0.6322DUM3 - 0.4756DUM4 \\ & (5.27) \quad (-5.25) \quad (-4.73) \quad (-3.66) \\ \bar{R}^2 = & 0.9434, \quad DW = 1.6675, \quad F = 162.0451 \end{aligned}$$

단, $d\log(GRDP, 4)$ 는 $GRDP$ 의 전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을 나타냄.

3. 물가부문

1) 소비자물가지수

- 충북의 소비자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국 소비자물가로 나타나고 있음.

$$\log(\text{CPI}) = -0.1211 - 0.0617\log(\text{CPI}(-1)) - 0.0003\text{UR} + 1.0846\log(\text{CPIN}) - 0.0016\text{DUM3}$$

$$\begin{matrix} (-0.49) & (-1.76) & (-0.51) & (24.15) & (-3.10) \end{matrix}$$

$$\text{AR}(0) = 0.9517\text{AR}(1)$$

$$(28.89)$$

$$\bar{R}^2 = 0.9998, \quad DW = 2.0828, \quad F = 45689.85$$

4. 금융부문

1) 총예금

- 자산선택이론(portfolio theory)에 따라 총예금이 전기 총예금, 지역내총생산, 예금금리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 전기의 총예금 이외의 설명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낮았음.

$$\log(\text{DE}) = 0.8352 + 0.8674\log(\text{DE}(-1)) + 0.0451\log(\text{GRDP})$$

$$\begin{matrix} (0.97) & (15.42) & (1.24) \end{matrix}$$

$$+ 0.0001\text{Di} + 0.0008\text{TREND}$$

$$\begin{matrix} (0.07) & (0.61) \end{matrix}$$

$$\bar{R}^2 = 0.9882, \quad DW = 2.0169, \quad F = 650.6527$$

2) 총대출

- 총대출이 전기의 총대출, 대출금리(Li)와 건축허가면적(CA), 지가지수(PL)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 대출금리와 건축허가면적이 총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에, 지가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begin{aligned} \log(\text{LO}) = & 1.7014 + 0.8455\log(\text{LO}(-1)) - 0.0150\text{Li} + 0.03128\log(\text{CA}) \\ & (3.44) \quad (19.55) \quad \quad \quad (-3.92) \quad (2.90) \\ & - 0.0015\log(\text{PL}) \\ & \quad \quad \quad (-0.36) \\ & \bar{R}^2 = 0.9915, \quad DW = 1.7711, \quad F = 906.0114 \end{aligned}$$

3) 어음 부도율

○ 충북 어음 부도율은 단기적인 변동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4분기 이동평균을 이용하여 불규칙 변동과 기타 단기적인 변동을 제거한 후 추정

- 결정계수와 F-값이 각각 0.91, 37.71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나 개별 변수의 계수 값은 전기의 부도율을 제외하고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음.

$$\begin{aligned} \text{MOVAV}(\text{RDB}, 4) = & 0.0357 + 0.6377\text{MOVAV}(\text{RDB}(-1), 4) - 0.0061\text{dlog}(\text{GRDP}, 4) \\ & (0.13) \quad (3.67) \quad \quad \quad (-1.20) \\ & + 0.0012(100*\text{LO}/\text{DE}) - 0.0236\text{DUM024} \\ & \quad \quad \quad (0.34) \quad \quad \quad (-0.37) \\ \text{AR}(0) = & 0.2647\text{AR}(1) \\ & \quad \quad \quad (0.68) \\ & \bar{R}^2 = 0.9107, \quad DW = 2.266, \quad F = 37.705 \end{aligned}$$

5. 해외부문

1) 상품수출

○ 충북의 산업구조는 반도체, 휴대폰 등의 IT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징과 더불어 이들 제품이 지역의 주력 수출상품이므로 수출경기의 변화가 지역의 생산 활동 및 전반적인 경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역의 수출을

내생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켜 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징을 반영

- 충북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국 수출액으로 1% 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 수출 역시 지역변수 보다는 전국의 수출경기에 민감하게 반응

$$\begin{aligned} \log(\text{EX}) = & -3.7329 + 0.4769\log(\text{EX}(-1)) + 0.3087\log(\text{GRDPN\$}) + 0.4568\log(\text{EXN}) \\ & (-5.91) \quad (6.29) \quad (3.46) \quad (4.55) \\ & - 0.1505\text{DUM_EX1} - 0.1287\text{DUM_EX2} \\ & (-2.84) \quad (-1.77) \\ \bar{R}^2 = & 0.9502, \quad DW = 1.8018, \quad F = 207.2674 \end{aligned}$$

2) 상품수입

- 충북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국 수입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수 값의 부호가 (+)로 나타나 충북 수입액이 전국 수입액의 변화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egin{aligned} \log(\text{IM}) = & -2.6658 + 0.3342\log(\text{IM}(-1)) + 0.2991\log(\text{GRDPN\$}) + 0.4416\log(\text{IMN}) \\ & (-3.77) \quad (3.16) \quad (2.01) \quad (2.75) \\ & - 0.0909\text{DUM032} - 0.1466\text{DUM_IM} \\ & (-0.74) \quad (-1.94) \\ \bar{R}^2 = & 0.8637, \quad DW = 1.8081, \quad F = 69.4183 \end{aligned}$$

6. 모형의 동태적 안정성

- 추정된 충북경제의 구조방정식 중 14개 내생변수에 대하여 2000년 1/4 분기부터 2003년 4/4분기에 걸친 4년의 기간 동안 동태적 모의실험을 실행
- 광공업 생산량(GRDP2), 농림어업 취업자 수(EM1), 수출(EX), 수입(IM)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RMSE%*는 1~3% 내외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의 *RMSE%*는 3.27%이며, 총취업자 수의 *RMSE%*는 2.73, 소비자물가지수(CPI)의 *RMSE%*는 0.97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광공업 생산량(GRDP2), 수출(EX), 수입(IM)의 경우에도 5~8% 내외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충북 지역경제모형의 오차분석 결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개별 행태방정식의 이론적 정식화가 잘 설계되었음은 물론 모형전체로서 설명력과 동태적 안정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됨.

<주요 변수의 평균 평방근 백분율 오차: 2000. 1/4 ~ 2003. 4/4>

(단위 : %, %p)

변 수 명	RMSE%	변 수 명	RMSE%
GRDP1	3.59	EM3	2.49
IP	3.09	EM	2.73
GRDP2	5.24	UR	0.18 ¹⁾
GRDP3	3.72	CPI	0.97
GRDP	3.27	RDB	0.09 ¹⁾
EM1	15.6	EX	8.57
EM2	3.19	IM	6.29

주1: 실업률과 부도율은 MAE로서 %p임.

III. 결론

□ 본고의 추정결과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충북 지역경제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으로부터 직접적이며 매우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음.
- 둘째, 충북지역의 인력수급 및 고용의 안정과 관련하여 본고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농림어업의 생산활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약하한 반면 광공업의 경우에 생산활동의 증가가 취업자 수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시사해 줌.

- 셋째, 산업별 취업자 수가 그 산업의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3차산업, 광공업 순서로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농림어업의 경우에는 취업자 수의 증가가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극히 미약
- 넷째, 수출이 충북지역의 광공업 생산, 산업생산지수 등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음. 일례로 충북지역 수출이 1% 증가하면 산업생산지수가 당기에 0.12% 상승하며 장기에는 0.29%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 충북이나 여타 지역경제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료의 제약과 표본기간, 내생변수·외생변수·정책변수의 선정, 추정모형의 설정, 추정방법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한 지역의 산업별 생산, 고용, 실업, 물가, 수출입의 결정요인과 외생적 충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미흡
- 본고는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본기간을 2004년까지로 확장하였으며,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가급적 많이 포함시켜 모형을 설명력을 향상시키려 시도하였고 전국 경제성장률, 고용, 물가, 실업, 수출입, 환율 등을 외생변수로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경제변동이 충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음.
- 본고에서 개발된 거시계량모형은 충북경제의 구조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기변동과 충북 자체의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안정을 제고시키는 정책입안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에서 지역경제 거시계량모형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역사, 연구역량, 연구내용 등의 측면에서 아직 초보적인 시론단계에 머물러 있음.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이 국가경제의 사활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모형에 대한 연구는 취약함.
- 본고의 분석결과는 지역경제모형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

해 줄 것이며, 본고에서 제시된 전체모형과 개별 방정식의 설정, 추정기법 등은 이 분야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됨

- 본고의 지역경제모형은 또한 다른 지역의 경제모형을 구축하는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며, 더욱 정치한 모형들을 개발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됨.

충북경제 동향과 전망 (2005. 2/4분기)

충북경제 동향과 전망

Quarterly Economic Outlook for Chungbuk

등록일 2000년 9월 18일

등록번호 충북바 01009

간별 계간

발행일 2005년 7월

발행인 이태일

펴낸곳 충북개발연구원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TEL. (043) 220-5486 FAX. (043) 252-0116

인쇄 성화인쇄공사(TEL. 043-231-5553)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및 참여자 개인의 견해이며 충북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충북경제 동향과 전망

Quarterly Economic Outlook for Chungbuk



충북개발연구원
CHUNGBUK DEVELOPMENT INSTITUTE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TEL(043)220-5481 ~ 98 / FAX(043)252-0116